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W. A. Mozart Piano Rondo in a minor, K. 511

F. Schubert Impromptu No. 3 in B♭ Major, D. 935

J. Brahms 6 Klavierstücke, Op. 118

C. Debussy Suite Bergamasque, L. 75 의

연구 및 연주

2017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조 아 란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W. A. Mozart Piano Rondo in a minor, K. 511
F. Schubert Impromptu No. 3 in B♭ Major, D. 935
J. Brahms 6 Klavierstücke, Op. 118
C. Debussy Suite Bergamasque, L. 75 의

연구 및 연주

2017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조 아 란

W. A. Mozart Piano Rondo in a minor, K. 511

F. Schubert Impromptu No. 3 in B^{b} Major, D. 935

J. Brahms 6 Klavierstücke, Op. 118

C. Debussy Suite Bergamasque, L. 75 의

연구 및 연주

지도교수 Aviram Reichert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

2017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조 아 란

조아란의 음악학 석서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최 희 연	(인)
부위원장	박 종 화	(인)
위원	Aviram Reichert	(인)

국문 초록

W. A. Mozart Piano Rondo in a minor, K. 511
F. Schubert Impromptu No.3 in B flat major, D. 935
J. Brahms 6 Klavierstücke, Op. 118
C. Debussy Suite Bergamasque, L. 75 의
연구 및 연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조아란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 연주 프로그램인 W. A. Mozart Piano Rondo in a minor, K. 511, F. Schubert Impromptu No. 3 in B flat Major, D. 935, J. Brahms 6 Klavierstücke, Op. 118, C. Debussy Suite Bergamasque, L. 75 에 대한 연구이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의 론도(Rondo) 작품들은 동시대 작곡가들-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이 론도를 소나타(Sonata)나 교향곡(Symphoy)의 한 악장으로 쓴 것과 달리 독립된 악곡으로 작곡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Rondo in a minor, K. 511」은 고전 시대 론도의 가장 기본 형식인 5 부 구조(A-B-A-C-A-Coda)를 가지며, 빠른 리듬의 음형과 반음계적 선율이 특징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론도와는 달리 드물게 단조로 작곡되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다. C 부분의 삽입부에 곡의 조성인 가단조(a minor)와 같은 으뜸음 조인 가장조(A Major)를 사용했으며, A 부분과 유사한 선율과 리듬형을 사용했으나 선율선과 화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성격적으로 강한 대조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선율과 리듬이 반복, 변형되는 전개와 각기 다른 부분의 강한 대조는 고전 시대의 론도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피아노 작품 중 즉흥곡은 소나타처럼 형식에 의존하지 않은, 자유로운 정신이 표현되어 있다. 슈베르트는 고전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서로 다른 특징을 자연스럽게 융합했다는 점에서 두 시대를 잇는 작곡가로 잘 알려져있는데, 그의 즉흥곡의 작곡 방식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성격 소품의 한 장르인 즉흥곡으로

D. 899 의 4 곡, D. 935 의 4 곡을 썼는데 이 중에는 소나타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작품도 있으며, 단순 3 부 형식으로 쓰인 곡도 있다. 그 중 「Impromptu No.3, D.935」는 Andate 의 빠르기를 갖는 주제와 5 개의 변주로 구성된 곡이다.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고전 시대의 전통을 중시했던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작품에서 대위법을 즐겨 썼고, 피아노 작품에서도 관현악적인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음역, 화성을 다양하게 썼다. 브람스의 생애 마지막 20 년 동안에 작곡된 피아노 소품 중의 하나인 「6 Klavierstücke Op. 118」은 6 곡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6 번에는 그의 노년의 고뇌와 슬픔이 명상적으로 표현되어있다. 각 소품들은 주로 3 부 형식(ABA)으로 구성되었고, 그의 대규모 작품들에서 보이는 표현 방식과 기법이 소규모 형식에 응축시켜 사용되었다.

클로드 아실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는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Suite Bergamasque)은 바로크 시대의 춤곡 악장에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이 잘 나타난 곡이다. 프렐류드(Prélude)는 넓은 음역을 통해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였다. 병행 3, 5, 8 도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의 조성 체계가 흔들리면서 감각적인 색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뉴엣(Menuet)은 교회 선법을 악곡 전체에 사용하여 다양한 음색 변화를 나타냈다. 달빛(Clair de lune)은 달빛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묘사한 표제가 붙은 서정적인 곡이다. 파스피에(Passepied)에서는 하성부의 스타카토(Staccato)와 이음줄(Slur)를 통해 대조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주요어: 모차르트, 론도, 슈베르트, 즉흥곡, 브람스, 모음곡, 드뷔시.
학번: 2015-21945

목차

Ⅰ. 서론 5

Ⅱ. 본론 6

W. A. Mozart Piano Rondo in a minor, K. 511 6

F. Schubert Impromptu No. 3 in B flat Major, D. 935 15

J. Brahms 6 Klavierstücke, Op. 118 22

C. Debussy Suite Bergamasque, L. 75 34

Ⅲ. 결론 43

참고 문헌 44

ABSTRACT 46

Ⅰ. 서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 과정 졸업 연주 프로그램인 W. A. Mozart Piano Rondo in a minor, K. 511, F. Schubert Impromptu No. 3 in B flat Major, D. 935, J. Brahms 6 Klavierstücke, Op. 118, C. Debussy Suite Bergamasque, L. 75 에 대한 연구이다. 본론에서는 각 곡의 작곡가와 작품의 장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작곡 배경과 구조를 탐구하고 분석할 것이다. 목적은 작곡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주하고자 함에 있다.

모차르트의 론도에서는 론도의 기원과 역사, 장르적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간단한 작품 분석을 통해 그의 론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에서는 고전 시대와 구별되는 낭만주의 시대 음악의 특징과 당시 유행하던 성격 소품(Character piece) 중 하나인 즉흥곡의 특성을 알아본 후 그의 즉흥곡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브람스의 6 개의 피아노 소품에서는 낭만주의 시대에 브람스의 음악의 특징적인 작곡 기법을 찾아보고,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에서는 인상주의 음악에 대해 살펴본 후 드뷔시가 인상주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작곡 기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제 1 장 W. A. Mozart Piano Rondo in a minor, K. 511

1) 작품 배경

론도(Rondo)란 3 부 형식(ABA)이 확장된 형식이다. 고전 시대에 많이 쓰였던 형식은 A-B-A-B-A 또는 A-B-A-C-A 의 5 부 형식(small rondo form)과 A-B-A-C-A-B'-A 의 7 부 형식(large rondo form)이다. A 부분의 처음에 등장하여 반복, 장식 혹은 변형되는 선율을 주제로 보고, B 와 C 부분에 등장하는 선율을 에피소드(Episode)로 본다. 곡은 주제가 재등장하며 반복, 변형되는 사이에 주제와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순환하며 반복된다. 론도의 주제는 적어도 3 번 이상 반복되며 반복될 때의 조성은 일반적으로 처음 주제가 제시될 때의 조성으로 등장한다.

론도의 기원은 12 세기 남프랑스 지방의 트루바두르(Troubadours)[1] 가 쓰던 론델(Rondel)이라는 형식인, 시에 춤을 곁들인 가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 이 가곡은 기본적으로 합창과 독창이 번갈아 나타난다. 이 시기에 불리던 명칭은 롱도(Rondeau)이며 단선율 노래(Monophonic Song)로 후렴구(Refrain)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렴구는 일반적으로 가사의 몇행 또는 몇쌍의 행들이 반복되었다.[3] <악보 1>

<악보 1> 12 세기 Troubadour 선율
: Reis glorios, Guitaut de Bernelh (1173-1220)

[1] Troubadours: 12-13 세기경에 남부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살던 시인이자 음악가를 총칭하는 말.

[2] Douglass M. Green, Form in Tonal Music, Yale University (1965), 150p

[3] Donal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1996), 66p

위 악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롱도에서의 후렴구의 반복은 이후 바로크 시기에 기악곡 형태로 발전된 론도에서 주제가 반복되는 것의 모태가 된다.

기악곡 형태의 론도는 17~18 세기 초반에 프랑스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초기 론도는 *Rondeau* 로 표기되어 이후의 론도(Rondo)와는 구별된다. 롱도는 변화되는 쿠플레(Couplet) [4]를 가지며 그 수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에 의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롱도(Rondeau)를 작곡한 프랑스 대표 작곡가로는 장 밥티스트 륄리(Jean-Baptise Lully, 1632-1687), 루이 쿠프랭(Louis Couperin, 1626-1661), 장 필립 라모(Jean Philippe Rameau, 1683-1764)가 있다. 또한 이들은 *'En Rondeau'* 라는 제목으로 지그(Gigue), 미뉴엣(Minuet), 가보트(Gavott)등과 함께 춤곡의 한 악장으로 쓰기도 했다. 특별히 륄리는 두 개의 쿠플레가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롱도(French Rondeau)를 고안했다. [5] 롱도(Rondeau)는 점차 영국의 헨리 퍼셀(Henry Purcell, 1659-1695), 독일의 조지 무팟(Georg Muffat, 1653-1794), 이탈리아의 에바리스토 펠리스 달아베코(E. F. Dall'Abaco, 1675-1742) 등에 의해 유럽 각지로 퍼지게 되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기악 조곡(Suite)의 정규 악장인 알르망드(Allemande), 쿠랑트(Courante), 사라방드(Sarabande), 지그(Gigue)외 유형의 춤곡으로 종종 론도를 썼다. 그의 론도는 밝은 성격의 선율을 가진 프랑스 롱도에 가까운 것으로 여흥을 위해 연주하기에 적합했다.

이후 고전 시대의 론도 형식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작품에서 쓰였다. 주로 쾌활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소나타,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등의 악장으로 쓰였는데 종종 느린 악장-예를 들어 Beethoven Piano Sonata Op.13 의 2 악장-이나 가운데 악장-예를 들어 J. Haydn 의 Piano Sonata Hob. X VI:48-에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6] 그러나 모차르트의 론도처럼 독립된 작품으로 작곡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전 시대의 론도는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발전되었다. 각 부분이 잘 구분되어 배열되었으며 더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었다. 일정한 수의 에피소드를 사용하였고, 주제와 에피소드, 에피소드와 주제를 연결구(Transition)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또한 조성의 변화를 통해 주제와 에피소드의 대조적인 성격이 커졌으며 곡의 마지막에 종지부(Coda)를 사용하기도 했다. [7] 에피소드가 여러 번 등장할

---

[4] Couplet: 후렴구. 론도에서는 반복되는 A 부분에 해당된다.

[5] 「The Ballet de Xerxes」의 'Rondeau Pour les Basques' 를 예로 들 수 있다.

[6]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1984), 174p

[7] Douglass M. Green, Form in Tonal Music, Yale University (1965), 153p

경우에도 조성에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프랑스 롱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2) 작품 해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출생으로, 고전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피아노 작품 중 론도는 변주곡(Variation)과 소나타(Sonata)에 비해서는 적게 쓰여졌으나, 당시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론도를 소나타의 한 악장으로 썼던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가 론도를 독립적인 작품으로 작곡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또한 그가 작곡한 3 곡의 론도 중 특히 「Rondo in a minor, K. 511」은 단조로 쓰였다. 이는 장조로 작곡된 작품이 많은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론도가 주로 장조로 쓰인 조성 음악에서 보았을 때에도 특징적이다.

유럽 전역에서 잦은 연주 여행을 가졌던 모차르트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자신만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음악에 표현했다. 초기 작품들이 대부분 짧고 형식이 단순한데 비해 후기 작품에 속하는 「Rondo in a minor, K. 511」은 다른 후기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곡의 길이가 길어졌고, 대위법이 쓰이기도 했다. 또한 갈랑 양식(Galant Style)[8]의 영향을 받아 서정적이고 장식적인 선율을 썼으며 동시에 감 7 화음의 사용과 강약의 대조를 통해 감정과다 양식(Empfindsamer Stil)을 표현하기도 했다.[9]

모차르트의 피아노 론도는 모두 3 곡으로, 「K. 485」와 「K. 494」는 1786 년에, 「K. 511」은 1787 년에 쓰였으며 모두 모차르트의 후기 작품으로 비엔나에서 작곡되었다. 「K. 511」은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상념을 엿볼 수 있는 곡으로 알려져있는데, 실제로 그는 이 곡의 작곡을 마치기 2 달 전인 1787 년 1 월 말 친구인 폰 하츠벨트

---

[8] 갈랑 양식(Galant Style): 본래 바로크 시대 이후 프랑스에서 나타난 로코코 시대의 경쾌하고 우아한 양식을 뜻하는데 장식적이고 서정적인 선율로 화려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귀족적인 양식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단정하며 세련된 것에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말이었으며, 음악적으로는 자유롭고 덜 선법적인 양식으로 대위법과 같이 엄격한 작곡법과 구별된 경우를 표현하는데에 쓰였다. 갈랑 양식으로 쓰인 곡들을 살펴보면 선율이 짧고, 쉼표가 많으며 여러 번의 종지를 갖는다. 종종 반복되는 동기들이 2-4 마디의 선율로 보다 큰 악구(phrase)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이 때 잦은 종지로 인해 흐름이 중단되기도 하지만 감 7 화음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단순한 화성으로 가볍게 반주하여 부드럽게 흘러간다. 이러한 특징은 요한 크리스찬 바흐(Johann Christian Bach, 1735-1782)의 작품과 모차르트의 론도에서 발견된다.

[9] Egon Wellesz & Frederik Sterndeld. The Age of Enlightment: 1745-1790 The New Oxford history of music.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vol. 7, 609p

백작의 죽음을 접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4 월 4 일에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 이라고 썼다고 한다. 또한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자필 원고에 비교적 상세하게 다이나믹(dynamic),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등을 적어놓은 곡으로도 알려져 있다.[10] <표 1>

<표 1> 작품 번호 511 의 Rondo in a minor, K. 511 의 구성

구성	마디	조성
A	1-30	a-C-a
B	31-80	F-C-g-f-D^{b}-b^{b}d-f-d-a-E-A
A	81-88	A
C	89-128	A-E-b-D-A-$f^{\#}$-D-e-D-a
A	129-162	a
Coda	163-182	a

곡 전반에 걸쳐 반음계적인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율로 곡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C 부분은 A 부분의 주제와 다른 독립된 동기를 가지면서 같은 으뜸음 조(A Major)로 바뀌어 강한 대조를 보이는데, 이는 7 부 형식의 특징을 빌려 절충한 방식이다. 또한 곡 전체를 통틀어 3 개의 주요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곡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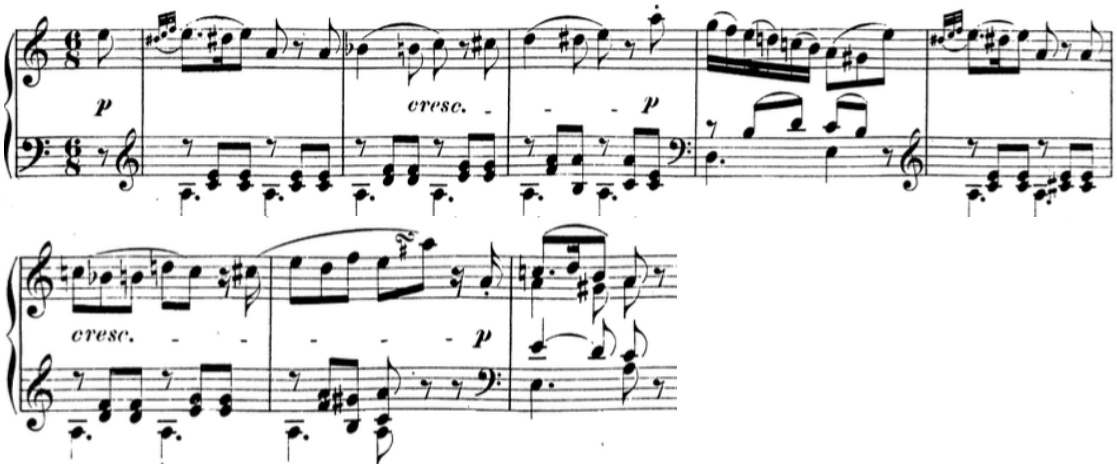
A 부분

주요 선율은 1-8 마디에 나타난다. 1-4 마디에 제시되는 선율은 하성부에서 페달 포인트(pedal point)가 으뜸음인 a 음으로 나타나며, 상성부는 반음계적으로 상, 하행한다. 4-8 마디에서 반복되는 선율은 전타음(appoggiatura)과 비화성음(nonharmonic tone)을 사용하여 변형되고 장식된다. 또한 으뜸음(tonic)인 a 와 딸림음(dominant)인 E 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a 음과 E 음을 중심으로 생기는 보조음(neighbouring tone)들도 곡 전반에 걸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한다. 5 마디 하성부에서 C 음이 $C^{\#}$음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C 부분에서 가장조(A Major)로 변할 것을 예고한다. <악보 2>

<악보 2> 론도 주제: 1-8 마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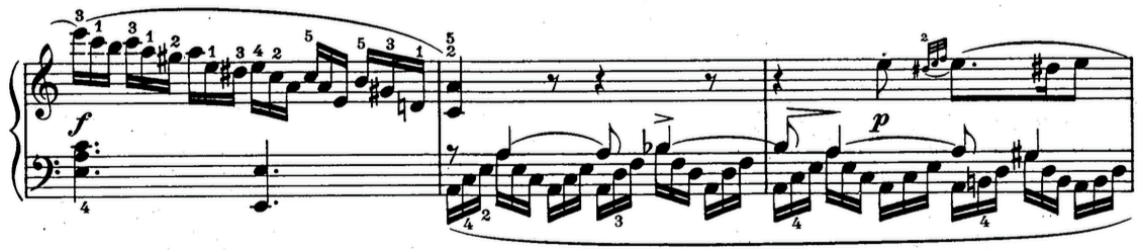
[10] 음악지우사 편집부 저,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모차르트」, (음악세계, 2001)



곡의 시작 부분에 쓰인 꾸밈음 D♯-E-F 는 이 곡이 반음계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며 곡의 마지막 부분에 5 도 아래에서 확대, 역행(retrograde)되어 쓰인다.[11] <악보 3-1>, <악보 3-2>

<악보 3-1> 꾸밈음의 역행: 1 마디와 177-178 마디

<악보 3-2> 꾸밈음의 역행: 177-178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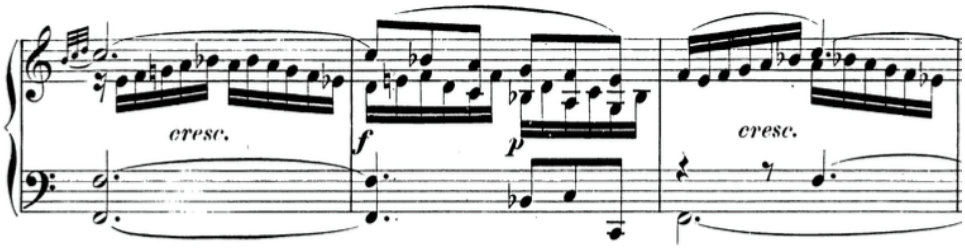
B 부분

곡의 첫번째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B 부분은 바장조(F Major)로 곡의 첫 음인

11 Frederick Newmann. Ornamentation in Baroque and Post-Baroque Music. (Princeton Press, 1978). 465-47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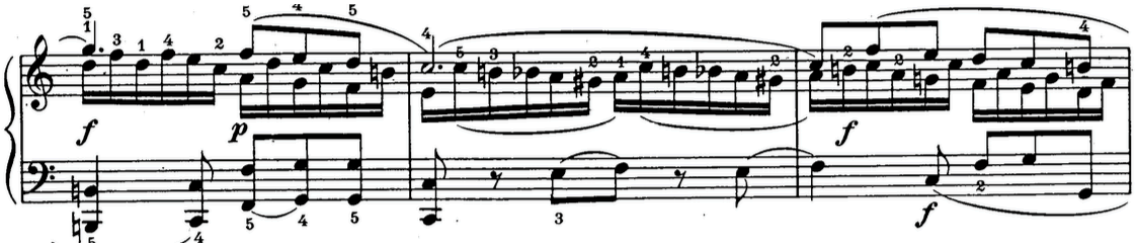
E 음의 윗보조음(upper neighbouring tone)이기도 하다. 다성부의 선율이 함께 진행(polyphony)되어 가득 찬 느낌을 준다. <악보 4>

<악보 4>: B 부분의 선율: 30-33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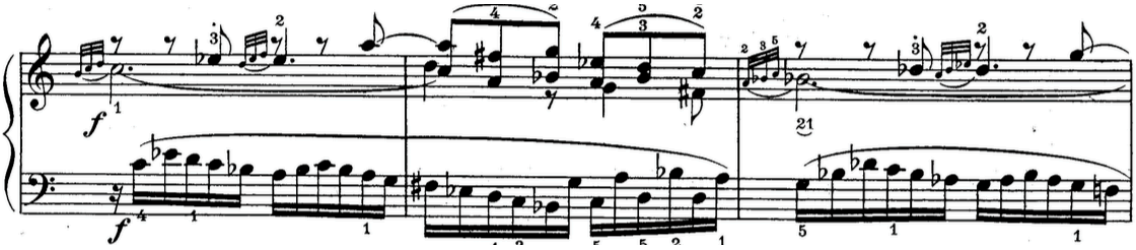
37 마디에서 쓰인 음형 a 는 48-54 마디에 옥타브 아래에서 성부가 바뀌어 반복적으로 나오며 반진행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반음계를 많이 사용하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진행은 곡 전체에서 넓게 응용된다. <악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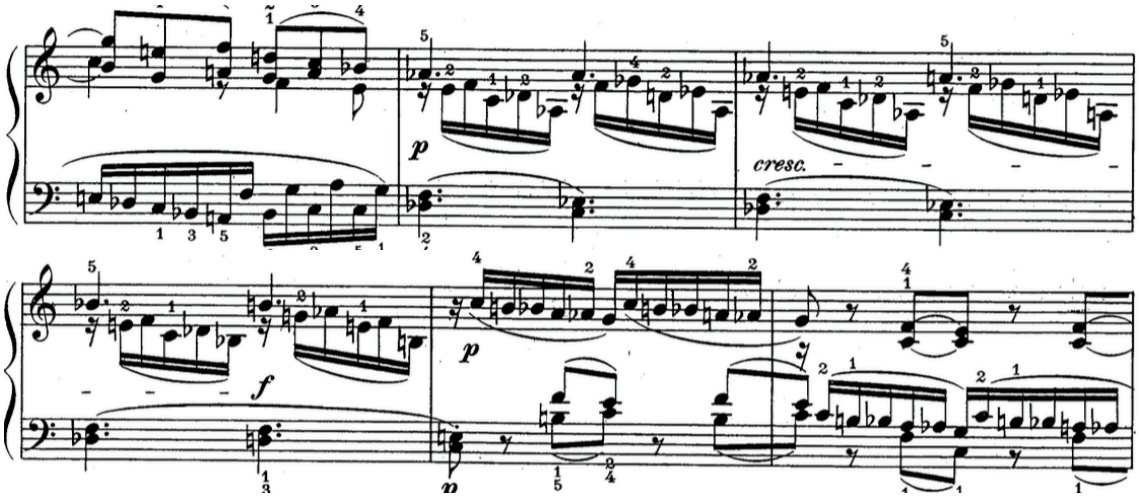
<악보 5>: 37-38 마디



B 부분의 두번째 부분인 42-45 마디에서는 37-38 마디에 쓰였던 선율이 장 2 도 아래로 동형 진행하면서 이조되어 변형, 반복되고 하성부는 빠른 리듬의 선율과 분산 화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37-38 마디에서 나타났던 반음계적 하행 선율의 리듬이 확대되어 46-49 마디에 나타나고, 중간 성부에서는 전타음의 비화성음이 사용되었다. <악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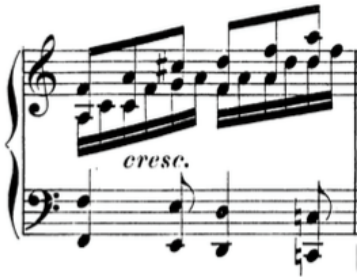
<악보 6>: 42-49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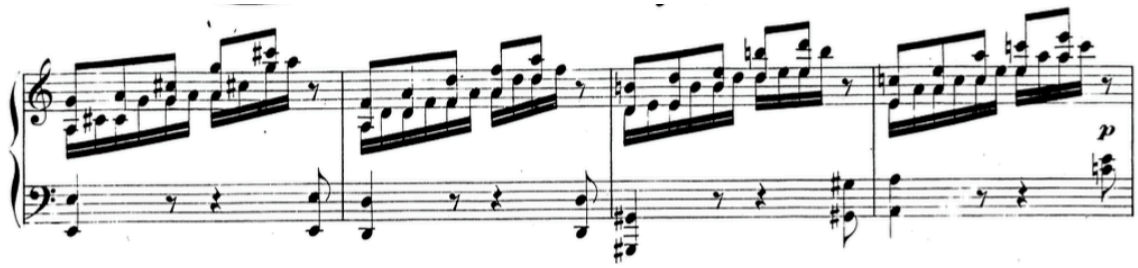


65-68 마디에서는 두 마디 단위로 완전 5 도 위로 동형 진행이 나타나며 이것은 35 마디에 쓰인 형태이다. <악보 7-1>, <악보 7-2>

<악보 7-1>: 35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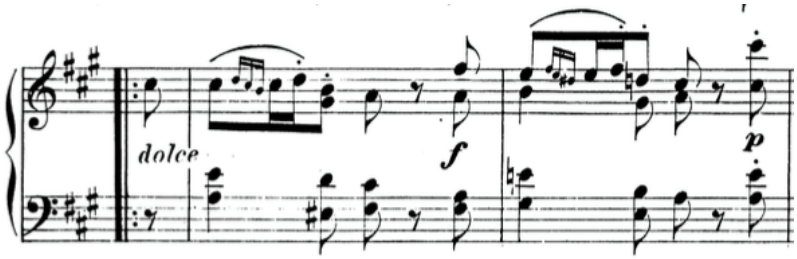
<악보 7-2>: 65-68 마디



C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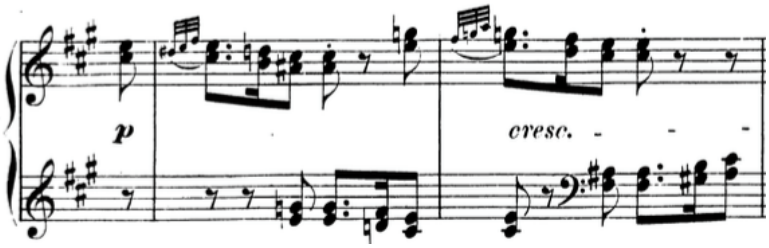
88 마디부터 C 부분이 시작되는데 곡 전체의 중심 조성이었던 가단조(a minor)가 같은 으뜸음 조인 가장조(A Major)로 변화하여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주선율에는 돋꾸밈음을 사용했다. <악보 8>

<악보 8> C 부분의 주요 선율: 88-90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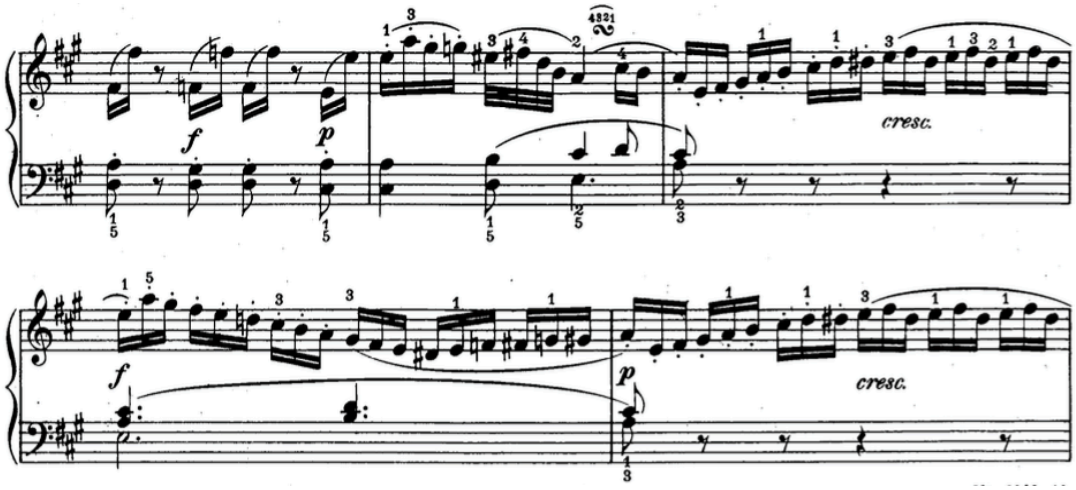
이러한 음형이 98 마디에서부터 성부 모방으로 겹쳐 나타난다.

<악보 9> 성부 모방: 98-100 마디



108-111 마디에서는 같은 진행이 2 번 반복된다. 이 때의 악상과 아티큘레이션은 주요 음들의 음악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A 음에서 D#음까지 가는 상행에서는 스타카토(staccato)로 연주되며, 선율 진행의 목표점인 E 에 도달했을 때는 이음줄을 사용하여 레가토(legato)로 연주하도록 했다. E-A, A-E 는 5 도 관계이며 스타카토와 레가토가 E 음을 중심으로 상, 하행될 때 *p* 와 *f* 가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은 계속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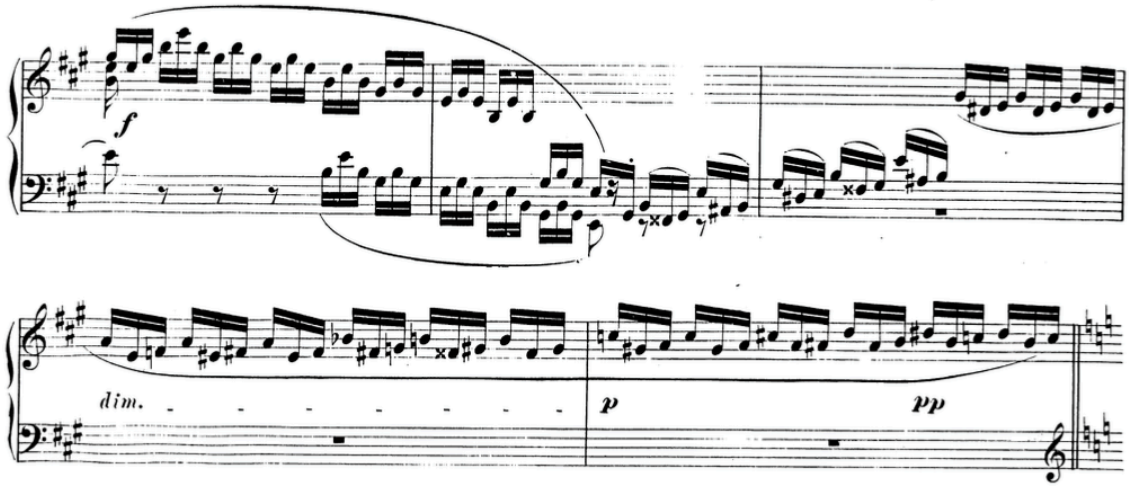
<악보 10> 중심음에 따른 아티큘레이션과 강약의 변화: 108-111 마디



이후 동형 진행 뿐만 아니라 반음계적인 선율 진행과 분산 화음형 진행이 곡 전반에 걸쳐 특징적으로 쓰인다.

연결구인 124-128 마디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피아노의 음역이 사용되었으며 3 화음의 분산 화음형 선율 뒤에 $G^{\#}$-A-B^{b}-B-C-$C^{\#}$-d-$D^{\#}$에 이르는 반음계적 진행이 나타난다. <악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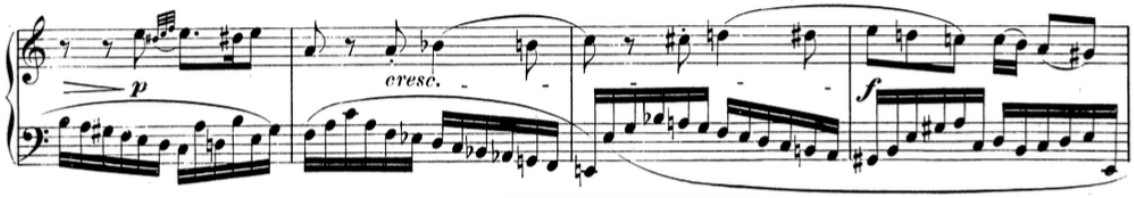
<악보 11> 연결구: 124-128 마디



Coda

163 마디부터 하성부의 아르페지오로 코다(Coda)가 시작되는데 상성부가 주제 선율을 재현하는동안 하성부에서는 3 화음과 분산형 화음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는 169 마디에 성부를 바꾸어 동형 진행하는데 이 때 상, 하성부 선율선의 음정 관계를 따져보면 3 도-6 도 패턴이 나온다. <악보 12>

<악보 12> Coda 의 상, 하성부의 음정 관계: 3 도-6 도 패턴



제 2 장 F. Schubert Impromptu No. 3 in B^{b} Major, D. 935

1) 작품 배경

19 세기를 대표하는 낭만주의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계급보다 개인의 고유함, 고귀함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어 독일, 프랑스를 거쳐 전 유럽에 전해졌다. 개인을 중요시한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들은 가장 주관적인 감정의 세계를 다루었다. 폭풍 치는 하늘은 회색빛이라든가, 비오는 날은 춥고 축축하다든가, 천둥 소리는 크다는 등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은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날씨에 대해서 우울하다거나, 활기차다거나, 두렵다거나 하는 감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들은 작품의 소재로 후자를 택했다. 고전 시대에 절제되고 균형 잡힌 객관적 아름다움과 계몽주의적인 희망을 추구했다면, 낭만주의 시대에는 보편적인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은 무한함과 숭고함을 추구했다.[12]

소나타(Sonata), 판타지아(Fantasy), 변주와 같이 고전 시대에 피아노 음악 레퍼토리를 지배했던 큰 형식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낭만주의 시대에는 이러한 큰 형식들의 비중이 줄었다. 새로운 장르로 음악 외적인 관련성을 지닌 즉흥곡(Impromptus), 무언가(Lieder ohne Worte), 연습곡(Etude), 간주곡(Intermezo)등의 성격 소품(Character Piece)들이 주로 작곡되었다. 당시의 심미적 관점으로 볼 때 가치있는 예술 작품이란 예술가 고유의 개인적인 감정 표현, 특히 음악에 있어서 작곡가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개념이었다.[13]

성격 소품 중 대표적 장르인 즉흥곡은 라틴어 '*In Promputu*' 에서 나온 말로 '준비되어 있음'을 뜻한다. 18 세기에 즉흥시 또는 연극의 즉흥 상연과 관련하여 쓰였고, 음악에 있어서는 19 세기에 발생한 성격 소품의 한 종류로 주로 피아노 작품에서 사용되었다. 즉흥곡은 일반적으로 단편적인 주제를 가지며 이는 주로 장식적 음형을 통해 변형되거나 단순하지만 기교적인 음형의 반복 혹은 변주를 통해 전개된다. 또한 단순히 작곡가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악상을 연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악보로 기보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연주할 수 있는 작품을 말한다. 즉흥곡의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작곡가는 보헤미아 출신의 요한 우고(Jan Václav Hugo Voříšek, 1791-1825)이며 1822 년에 하인리히 마쉬너(Heinrich

---

12 권송택, 음악 속 삶 읽기,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1), 109p

13 F. E. Kirby, 김혜선 옮김, 피아노 음악사, (도서 출판 다리, 2003), 257p

August Marschner, 1795-1861)가 6 개의 즉흥곡을 작곡했고, 이후 프레데릭 프랑수아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 프란츠 피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가브리엘 포레(Gabriel Urbain Fauré, 1845-1924)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저명한 슈베르트 연구가인 알프레드 아인슈타인(Alfred Einstein, 1880-1952)은 슈베르트를 '낭만주의적 고전주의자'라고 하였다. 이는 어떤 장르-구체적으로 소나타 형식을 사용한 기악 작품이나 오케스트라 작품-에 있어서는 고전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다른 장르-가곡이나 피아노 소품-에 있어서는 낭만주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14]

슈베르트가 작곡한 8 개의 즉흥곡은 후대 낭만 시대의 작곡가들이 피아노 소품이란 장르를 형성하는데에 기여했다. 내면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나 심상, 즉흥적인 악상을 주재료로 그의 가곡에서 영향을 받아 서정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며 꾸밈없이 유려하게 흐르는 선율을 주제로 썼으며 이는 곡 전체에 모티브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유지했다.[15] 대부분 3 부 형식의 길지 않고 소박한 짜임새 안에서 따뜻하고 색채감 있는 화성과 아름다운 선율이 나타난다. 1827 년에 「Op. 90」의 4 곡, 「Op. 142」의 4 곡이 작곡되었고 이를 통해 슈베르트는 즉흥곡의 초기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전까지는 화성 진행에 있어서는 단순하고, 악구 구조와 선율 흐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을 보였던 즉흥곡이 슈베르트의 작품에서는 서정적인 요소를 내포하여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음악적 사상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발전된다.

2) 작품 해설

슈베르트의 즉흥곡은 네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Op. 142」는 1827 년에 작곡된 후 1839 년에 출판되었다. 4 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번은 바단조(f minor), 2 번은 내림 가장조(A^b Major), 3 번은 내림 나장조(B^b Major), 마지막 4 번은 바단조(f minor)로 작곡되었다. 이는 바단조(f minor)에서의 i-III-IV-i 의 화성 진행을 따른 조성적 설계이다. 3 번이 iv 가 아닌 IV 즉 장조로 작곡된 이유는 장·단조 선법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슈베르트의 화성어법의 특징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16] 조성 뿐만

---

14 음악지우사 편집부,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 「슈베르트」, (음악세계, 2002), 14p

15 음악지우사 편집부,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 「슈베르트」, (음악세계, 2002), 102p

16 윤미연, 「낭만주의 Impromptu 에 관한 연구-Schubert 와 Chopin 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30p

아니라 각 악장의 빠르기 또한 연관성을 갖는데 1 번부터 4 번까지 순서대로 *Allegro moderato-Allegretto-Andante-Allegro scherzando* 로 쓰여 일반적인 소나타 악장의 템포를 따르고 있다. 또한 그가 출판한 소나타들이 대부분 4 악장 구성을 갖기 때문에 작품 번호 142 의 4 곡이 각각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각각이 악장으로서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다.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그가 출간한 음악신보에서 이 곡이 출판될 당시 바단조 소나타(Sonata in f minor)로 구성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한다.[17]

슈베르트의 피아노 즉흥곡은 상성부에 선율이 흐르고 내성이 반주 음형과 같이 쓰인 곡의 텍스쳐(texture)로 쓰여 가곡의 작곡 기법으로부터 영향 받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이 곡의 주제는 그의 오페라 「로자문데」 에서 쓰인 선율에서 빌려왔으며 주제 선율을 동반하는 음형 또한 가곡의 반주 부분과 유사하다. 주제는 안단테(Andante)의 빠르기를 가지며 5 개의 변주와 코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주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표 2>「Impromptu Op.142 No.3」의 조성 구조

변주	Thema	Var. Ⅰ	Var. Ⅱ	Var. Ⅲ	Var. Ⅳ	Var. Ⅴ	Coda
조성	B^b Major	B^b Major	B^b Major	b^b minor	G^b Major	B^b Major	B^b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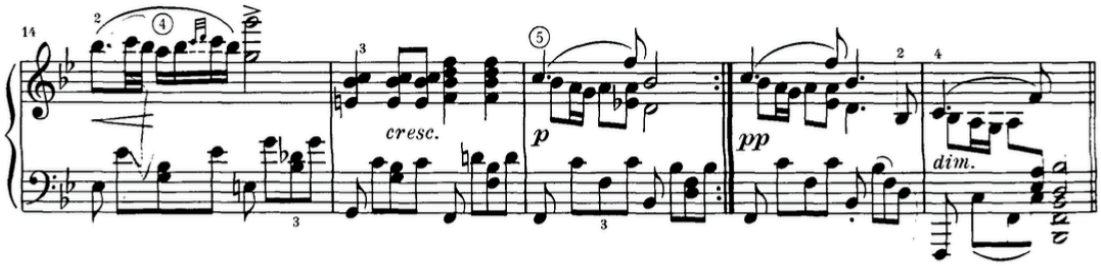
제 4 변주는 으뜸조인 내림 나장조(B^b Major)보다 3 도 아래의 조성인 내림 사장조(G^b Major)이다. 이러한 조성 관계는 Op. 142 의 1 번의 조성이 바단조(f minor)이며 1 번의 제 2 주제를 3 도 위인 가장조(A Major)로 쓴 것으로 볼 때 1 번의 화성적 구조와 연관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슈베르트가 조성적 설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5 도 관계 뿐만 아니라 3 도 관계 또한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Thema

주제는 두도막 형식인 A(a+a')+A(a"+a"')로 이전의 2 번과 같이 마침 악구(closing phrase)가 반복되어 연장되어있다. <악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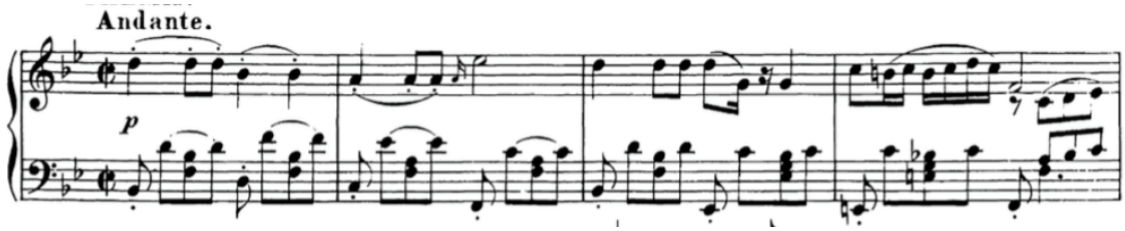
<악보 14> 마침 악구: 17-18 마디

17 F. E. Kirby, 김혜선 역, 피아노 음악사, (도서출판 다리, 2003), 189p



소박한 민요풍이면서 우수를 담고 있는 선율에 단순한 화성적 반주로 되어있다. 주제의 모티브는 동음 반복에 의한 3 도 하행 으로 1, 2 번과 음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 곡 첫 4 마디의 선율 구조가 D-E^{b}-F 과 명백한 연관을 가진다.[18] <악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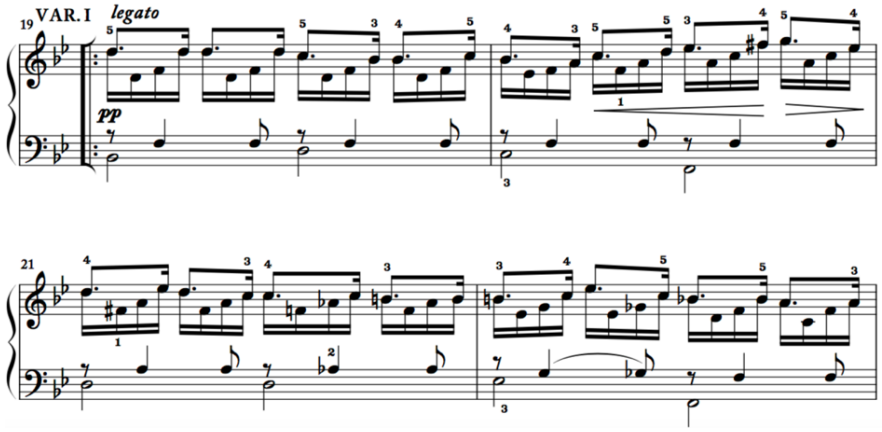
<악보 13> Impromptu Op.142 No.3 주제 선율: 1-4 마디



Var. I

제 1 변주는 조성과 화성을 주제와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선율이 붓점 리듬으로 변형되고 비화성음을 첨가한 선율 반주가 동반된다. 오른손의 분산 화음과 왼손의 당김음을 통한 리듬적 변화가 반주의 주요 요소를 이룬다. <악보 14>

<악보 14> 제 1 변주: 19-22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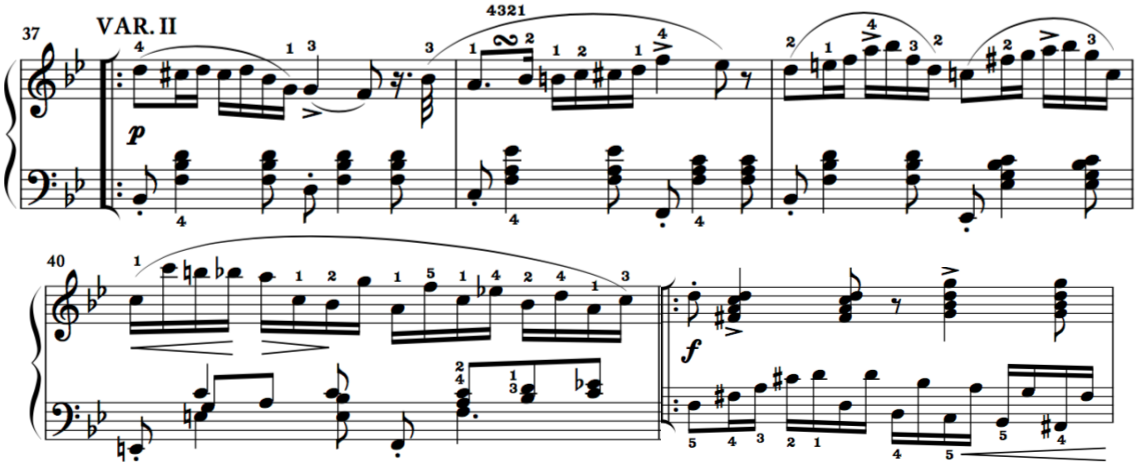


18 윤미연,「낭만주의 Impromptu 에 관한 연구-Schubert 와 Chopin 의 작품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7), 33p

Var. Ⅱ

제 2 변주에서는 선율에 보다 경쾌하고 자유로운 리듬이 나타난다. 왼손에서 제 1 변주의 당김음 리듬이 지속되지만 분산 화음 대신 수직 화음의 반주가 동반된다. 44 마디에서부터는 상성과 하성부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왼손에서 대선율이 나타나면서 오른손은 당김음 리듬으로 진행된다. <악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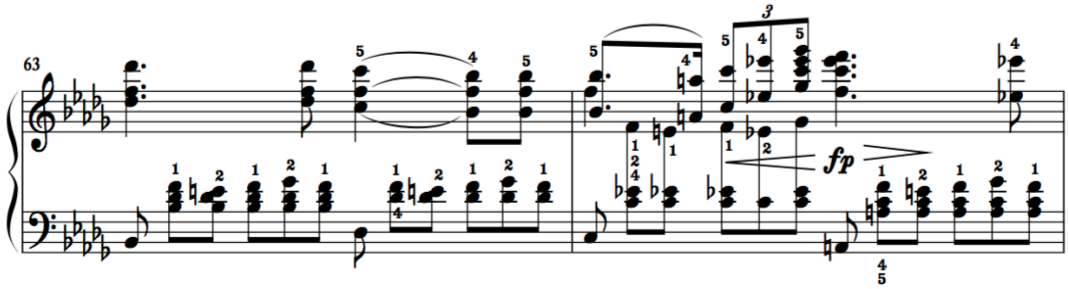
<악보 15> 제 2 변주의 대선율의 변화: 37-40, 44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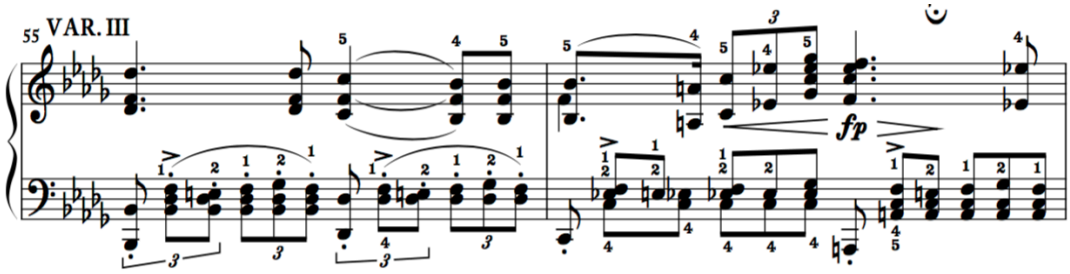


Var. Ⅲ

제 3 변주는 으뜸조의 같은 으뜸음 조인 내림 나단조(b♭ minor)로 조성이 바뀐다. 주제의 윤곽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수직 화음에 의한 반주 위에 오른손의 유려 한 선율에 내성이 채워지거나 옥타브 중복을 통해 선율성이 강조된다. 특히 전반부의 반복이 제 1, 2 변주와는 달리 양손이 모두 한 옥타브 위로 옮겨져 반복하여 음역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16>

<악보 16> 제 3 변주의 한 옥타브 위로의 이동: 55-58, 63-64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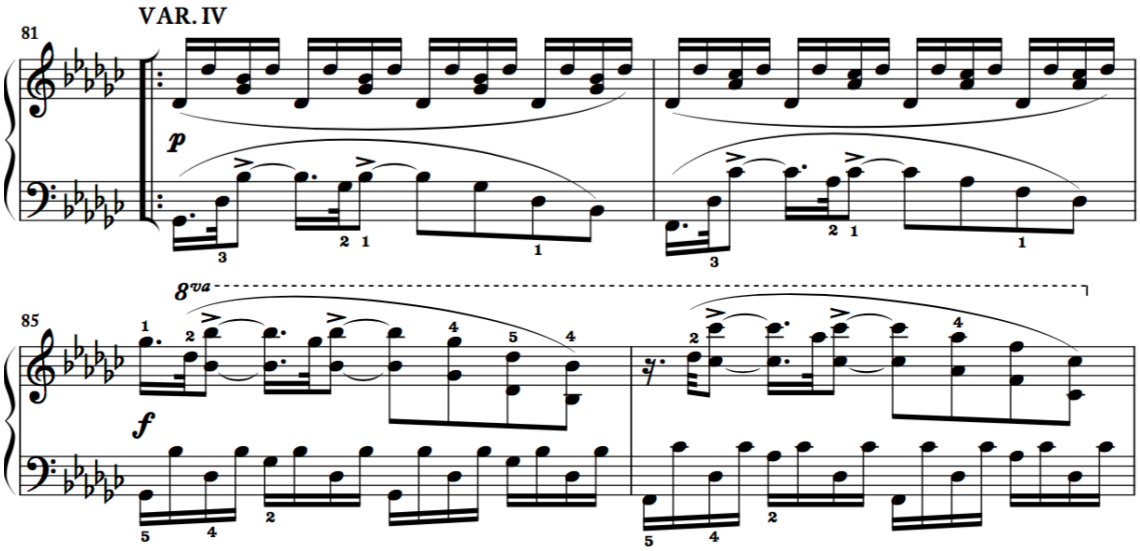


Var. IV

제 4 변주는 조성이 내림 가장조(G♭ Major)로, 원조인 내림 나장조(B♭ Major)의 같은 으뜸음 조인 내림 나단조(b♭ minor)의 3 도 아래 조성이 된다. 여기에서 슈베르트가 3 도 음정을 활발하게 사용한 낭만주의 시대 음악의 화성어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 변주에서는 주제 선율의 윤곽을 찾아볼 수 없을만큼 선율적 변화가 크지만 제 1 변주의 당김음 리듬이 붓점 리듬과 결합되었고, 반주 역시 분산 화음이 동반되어 제 1 변주를 회상할 수 있게 한다.

85 마디에서 양손의 역할이 바뀌면서 음역의 이동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얻어낸다. 다이나믹 또한 *p* 에서 *f* 로 바뀌어 대비된다. <악보 17>

<악보 17> 제 4 변주의 음역의 이동: 81-82, 85-86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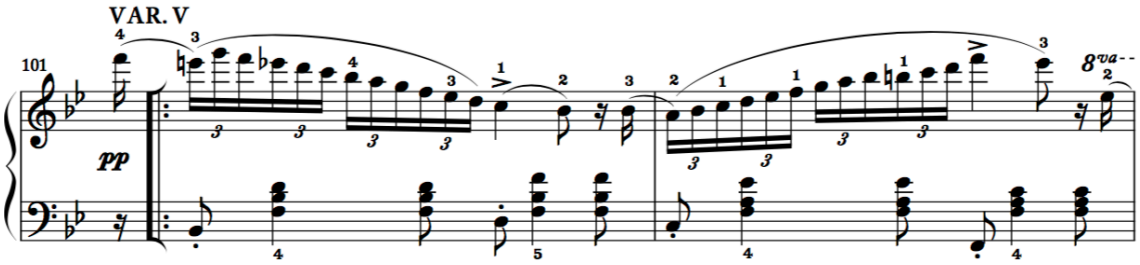


Var. V

제 5 변주는 다시 으뜸조인 내림 나장조(B♭ Major)로 돌아와서 화성 진행 또한 주제의 화성 진행을 재현한다. 선율은 흐르는듯한 16 분음표가 주를 이루며 제 2 변주의 당김음 리듬의 화음 반주가 나온다.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코다와의 연결을 위해 딸림 화음으로 끝맺는다. <악보 18>

<악보 18> 제 5 변주: 101-102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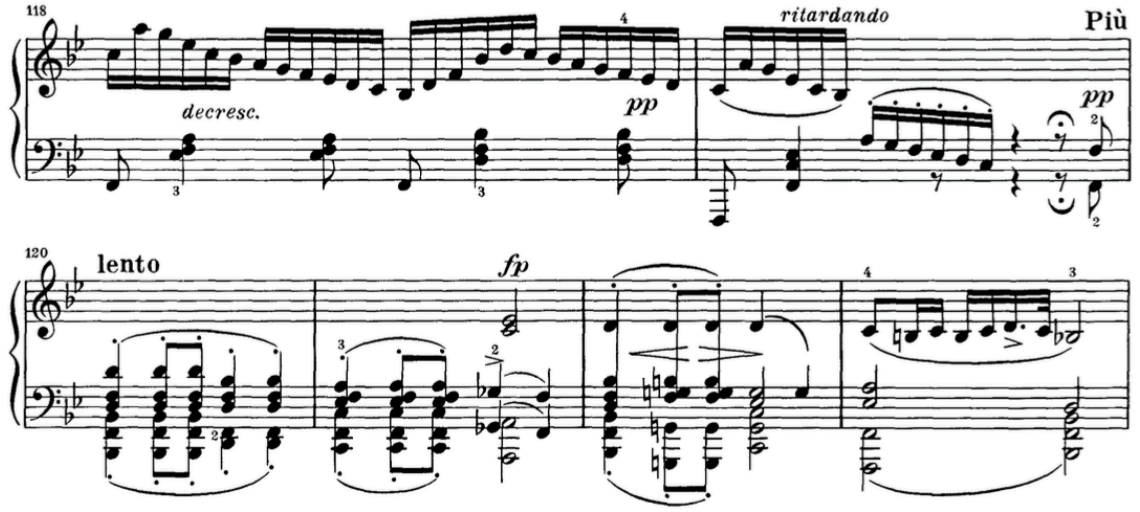


Coda

마지막 코다 부분은 주제의 전반부를 한 옥타브 낮추어 *Più lento* (더 느리게)로 연주한다. 템포(tempo)에 변화를 줌으로써 동일한 선율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표현한 것인데 이처럼 슈베르트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음역의 교대를 통한 음색의 미묘한 변화, 빠르기의 변화 등을 통해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 작곡가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다는 완전 정격 종지를 한 후 마침 악구의 반복을 통해 종지감을 강화하며 곡을 끝맺는다. <악보 19>

<악보 19> Coda: 마디 119-123



제 3 장 J. Brahms 6 Klavierstücke, Op. 118

1) 작품 배경

19 세기 후반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인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낭만주의적 고전주의자(Romantic Classict)'라고 불릴만큼 고전주의 형식을 유지하는 동시에 후기 낭만주의의 새로운 어법을 조화롭게 결합했던 작곡가이다.[19]

브람스는 자신의 피아노 음악에서 웅장함과 화려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일을 피했고, 대신에 견고한 기본 재료를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견실한 기법, 생명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적인 음악적 일관성을 지닌 작품을 창출했다. 종종 그의 피아노 음악은 3 도, 6 도, 8 도의 음정이 복합된 패시지들로 인해 빽빽하지만 안정된 느낌을 준다. 또한, 그의 탁월한 리듬감이 돋보이는 당김음(syncopation), 폴리 리듬(polyrhythm) 및 이와 유사한 리듬 변형 기법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요한 세바스탄 바흐의 푸가(Fuga)들을 전조하여 연주하기를 즐겨했던 그는 대위법을 즐겨 쓰기도 했다.[20]

1870 년대 이후 브람스는 <Kalvierstücke, Op. 76>을 시작으로 피아노 소품을 작곡했다. 그의 소품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형식으로 작곡되었으며, 능숙한 대위법의 사용과 화성의 변화로 인한 색채감이 돋보인다. 또한, 다수의 곡들이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변주로 전개하는 변주곡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의 피아노 소품은 낭만 시대의 일반적인 성격 소품과 같이 표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메조(Intermezzo), 발라드(Ballade), 카프리치오(Capriccio), 랩소디(Rhapsodie), 로망스(Romanze)와 같이 주로 고전 시대 음악에 작곡되었던 장르의 제목들을 붙였다.

2) 작품 해설

브람스는 그의 생애 마지막 20 년동안 성격소품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작품을 6 권의 소품집으로 만들어 출판했다.[21] 그 중 1892 년에 작곡된 <6 Klavierstücke, Op.

---

19 음악지우사.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브람스」, (음악세계, 2003) 6p

20 J.Gillespie, 김경임 옮김, 피아노 음악,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1), 305p

21 음악지우사.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브람스」, (음악세계, 2003) 8p

118>은 4 개의 인터메조와 1 개의 발라드, 1 개의 로망스로 구성되어있다.

1. 인터메조 Intermezz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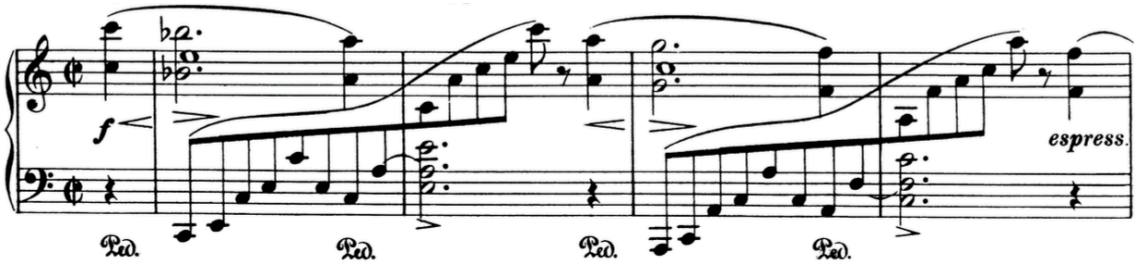
1 번 인터메조는 「Op. 118」의 총 6 곡 중 가장 짧은 길이의 곡으로 마치 전주곡과 같은 역할을 한다. 코다(Coda)를 갖는 순환 2 부분 형식(rounded binary form)이며, 각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3>

<표 3> 제 1 번 인터메조의 구성

구조		마디	조성	박자
A	a	1-10	a minor	2/2
B	b	11-20		
	a′	20-30		
Closing		3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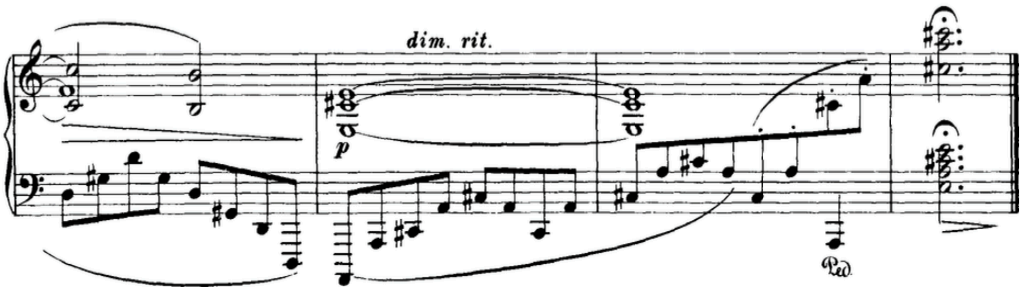
못갖춘 마디로 시작하며, 옥타브로 시작되는 첫 C 음은 바장조(F Major)의 딸림 7 화음으로써 조성적으로도 불안한 느낌을 준다. 순차 하행하는 주제 선율은 왼손의 분산 화음에 의해 화성적으로 뒷받침되는데 이 때 왼손의 넓은 아르페지오(arpeggio)가 하나의 음악적 아이디어로 사용되어 곡 전체를 이끌어 간다. <악보 20>

<악보 20> 제 1 번 인터메조의 주제 선율: 1-4 마디



곡의 마침 악구(closing phrase)에서 주제 동기가 확대된 길이로 등장하고, 이후 같은 으뜸음 조인 가장조(A Major) 코드로 마무리되어 2 번(A Major)의 등장을 기대하며 끝맺는다. <악보 21>

<악보 21> 제 1 번 인터메조의 종지: 39-41 마디



2. 인터메조 Intermezz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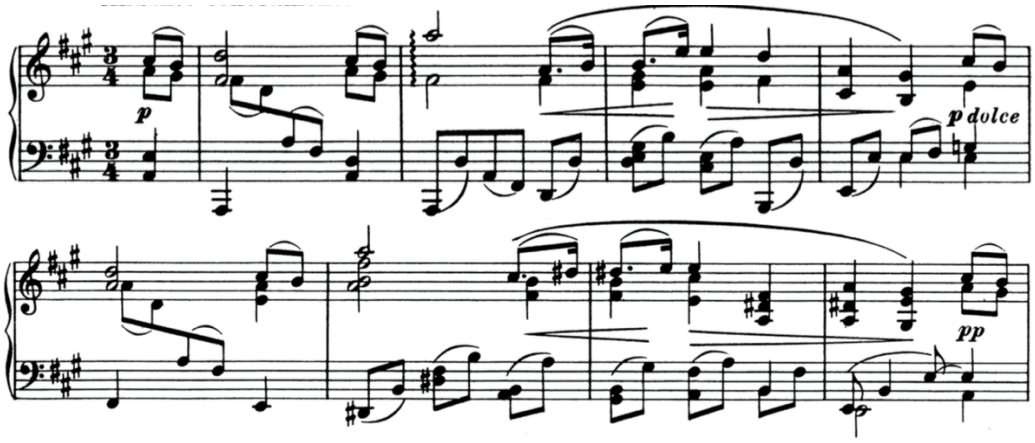
2 번 인터메조는 서정적인 가곡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곡으로 복잡한 기교가 숨겨져있으나 포근하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지녀 친밀한 느낌을 준다. 내용상 A-B-A′의 복합 3 부 형식(compound ternary form)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순환 2 부 형식의 구조를 보인다. <표 4>

<표 4> 제 2 번 인터메조의 구성

구조		마디	조성	박자
A	a	1-16	A major	3/4
	b	16-30		
	a′	31-38		
	Closing	39-48		
B	c	49-56	$f^{\#}$ minor	
	Transition	57-64		
	c′	65-73		
	Link	74-76		
A′	a″	77-84	A major	
	b	84-98		
	a′	99-106		
	Closing	107-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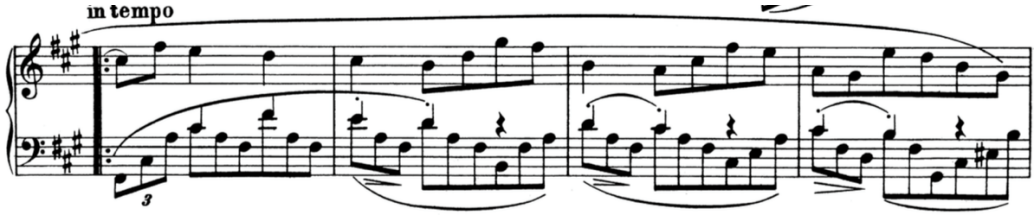
A 부분에서 4 마디 단위의 주제 선율이 *p~pp* 로 네 번 반복된다. <악보 22>

<악보 22> 제 2 번 인터메조의 주제 선율: 1-8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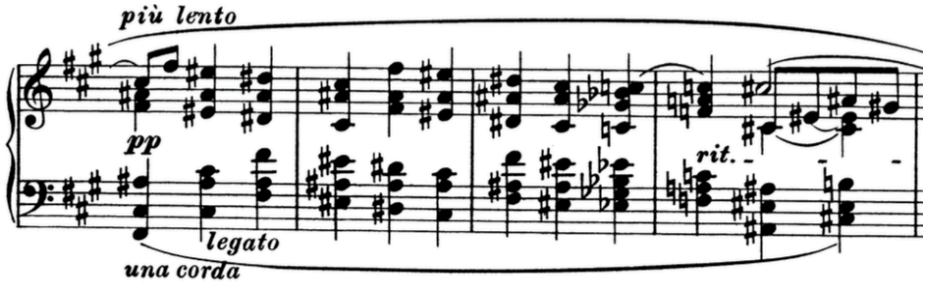
B 부분은 나란한 조인 올림 바단조(f♯ minor)로 시작되며 오른손 성부에 나타난 선율은 2 박자 간격을 두고 왼손의 내성부에서 모방된다. 하성부는 화성을 채워주는 아르페지오 음형이 셋잇단 음표로 전개되어 A 부분과는 대조적인 특징을 지니며, 이 셋잇단음표 리듬이 오른손의 8 분음표 리듬과 함께 수직적으로 진행하면서 2:3 의 교차 리듬이 나타난다. <악보 23>

<악보 23> 제 2 번 인터메조의 B 부분: 49-52 마디



57 마디부터는 올림 바장조(F♯ Major)로 8 마디가 진행된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2 박 간격으로 주제 선율의 모방이 이루어지나 4 분음표의 코드, *pp* 의 악상, 왼쪽 페달(una corda)의 사용을 지시함으로써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 <악보 24>

<악보 24> 제 2 번 인터메조: 57-62 마디



3. 발라드 Ballade

3 번 발라드는 사단조(g minor)의 곡으로 빠르고 힘차게(Allegro energico) 연주하는 곡이다. A-B-A'의 복합 3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부분은 사단조-마장조-사단조(g minor-B Major-g minor) 로 장 3 도 관계를 이룬다. <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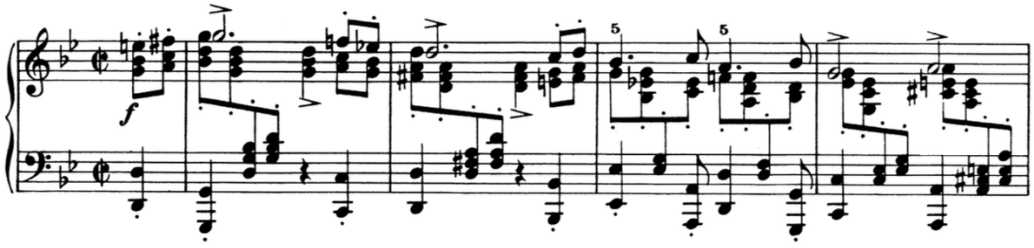
<표 5> 제 3 번 Ballade 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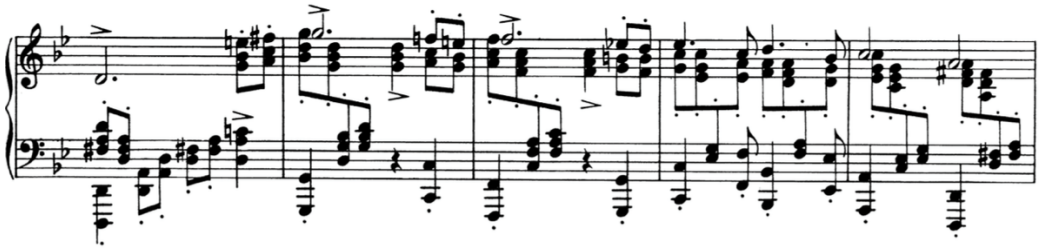
구조		마디	프레이즈 구조	조성
A	a	1-10	1-5 마디, 5-10 마디	g minor
	b	10-22	11-17 마디, 17-22 마디	
	a'	23-31	22-27 마디, 27-32 마디	
	Transition	32-40		
B	c	41-56	41-48 마디, 49-56 마디	B major
	c'	57-72	57-64 마디, 65-72 마디	
	Link	73-76		g minor
A'	a	77-86	77-81 마디, 82-86 마디	g minor
	b	86-98	87-93 마디, 94-98 마디	
	a'	98-107	99-103 마디, 104-107 마디	
	Codetta	108-117		

A 부분의 주제 선율은 곡 전체를 이끌어가는 토대가 되며 이 선율이 B 부분에서도 잠시 등장하는데, 이러한 작곡 기법은 브람스 작품에서 극히 드문 일이다.

5 마디의 악구(phrase)가 주제 선율이 제시되고, 곡 전반에 걸쳐 5 마디 단위로 악구가 진행된다. <악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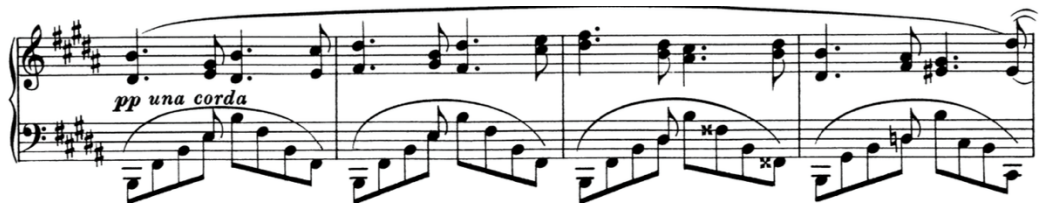
<악보 25> 제 3 번 발라드의 주제 선율: 1-9 마디





B 부분은 마장조(B Major)이며 A 부분과는 대조적인 주제 선율을 가진다. *pp* 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은 3, 6 도 화음을 이루며 노래하고, 왼손은 아르페지오로 화성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악보 26>

<악보 26> 제 3 번 발라드의 B 부분: 41-45 마디



4. 인터메조 Intermezzo

연주자의 섬세한 표현력이 요구되는 4 번은 곡 전반에 걸쳐 오른손과 왼손이 카논(Canon)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Op. 118」중에서 가장 긴 133 마디로 이루어져있다. 이 곡 역시 못갖춘 마디로 시작하며, 곡 전반에 셋잇단 음표가 사용되어 긴장되고 초조한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2 번과 마찬가지로 내용상으로는 A-B-A′의 복합 3 부분형식(compound ternary form)을 보이나,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순환 2 부 형식의 구조를 보인다.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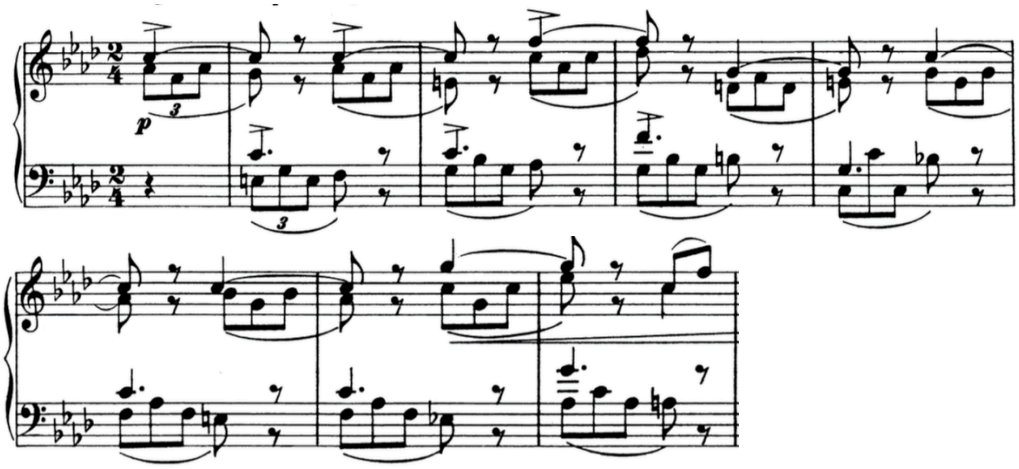
<표 6> 제 4 번 인터메조의 구성

구조		마디	조성	박자
A	a	1-16	f minor	2/4
	b	16-39		
	a′	39-47		
	Transition	47-51		
B	c	51-91	A^b Major	
	Transition	91-99		

A′	a′	99-110	f minor	
	Coda	11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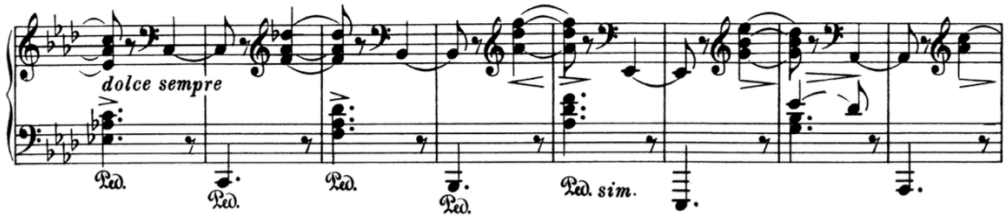
Delicamente (섬세하게), *dolce* (부드럽게)와 같은 지시어가 쓰인 부분을 보면, 브람스가 템포 루바토(tempo rubato)를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브람스는 연주할 때 템포 루바토를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오른손과 왼손이 언제나 1 박 간격의 카논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모방 대위법으로 인해 성부들 간의 동등성이 강화된다. 이는 브람스 후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작곡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6>

<악보 26> 제 4 번 인터메조의 주제 선율: 1-6 마디



B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손이 1 박 간격의 카논으로 진행되며, 코드와 단음의 패턴을 모방한다. <악보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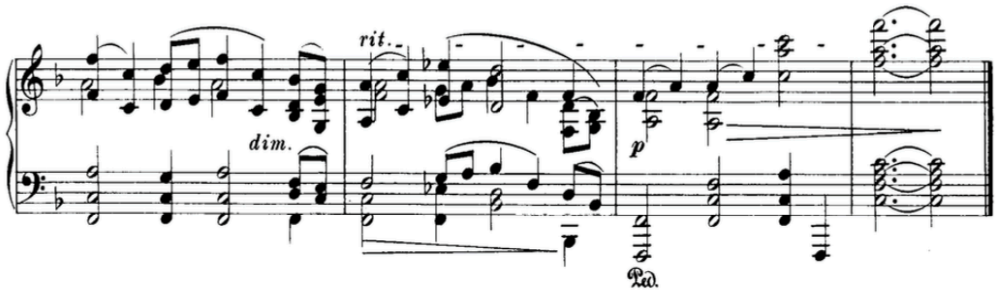
<악보 27> 제 4 번 인터메조의 B 부분: 마디 59-66



이 지속적인 카논 모방은 40 마디에 걸쳐 진행되어 낮은 F 음으로 사라지듯이 마무리 되었다가 원조인 바단조(f minor)의 A'부분으로 연결되어 절정을 향해 힘차게 내닫는다.

4 번의 마지막 코드는 바장조(F Major)로 끝을 맺어 자연스럽게 5 번 (F Major)으로 이어진다. <악보 28>

<악보 28> 제 4 번 인터메조의 종지: 129-133 마디



5. 로망스 Romanze

5 번 로망스는 57 마디의 구성으로 작품번호 118 중 비교적 짧은 곡이며 바로크 시대를 연상케하는 고풍스러운 느낌의 로망스이다.[22] 변주곡(Variation) 형태로 곡이 진행된다. <표 7>

<표 7> 제 5 번 로망스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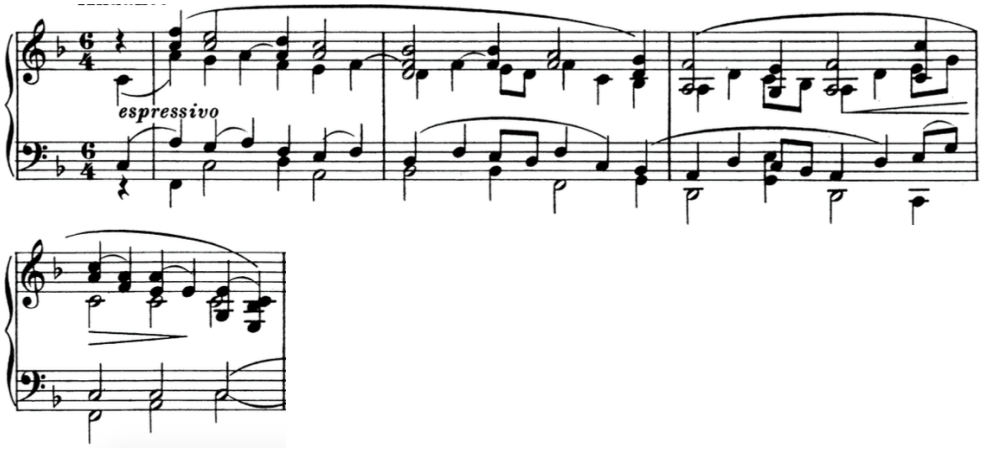
구조	마디	프레이즈 구조	조성	박자
A	1-16	1-4 마디	F Major-(d minor)	6/4
		5-8 마디		
		9-12 마디		
		13-16 마디		
B	17-47	17-20 마디	D Major	2/2
		21-24 마디		
		25-28 마디		
		29-32 마디		
		33-36 마디		
		37-44 마디		
		Bridge 45-47 마디	D Major-d minor	6/4
A'	48-57		F Major	6/4

A 부분에서는 4 마디 악구의 주제 선율이 변주되어 여러 번 등장한다. 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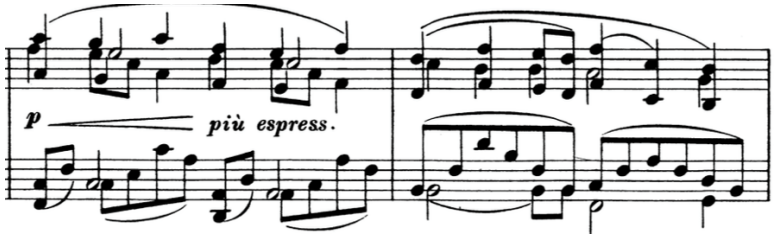
[22] 음악지우사 저,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브람스」, (음악세계, 2009), 379p

처음 등장하는 주제 선율은 양손의 내성부에 위치하여 옥타브로 중복되고, 상성부는 하행 선율로 주제 선율과 대위법적 구조를 이룬다. 9 마디 이후부터는 이 두 성부가 자리를 바꿔 주제 선율은 상성부로, 대위 선율은 내성으로 들어온다. <악보 29>

<악보 29-1> 제 5 번 로망스의 주제 선율: 1-4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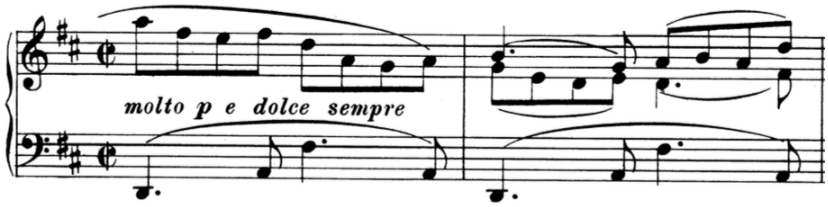
<악보 29-2> 주제 선율의 성부 이동: 9-10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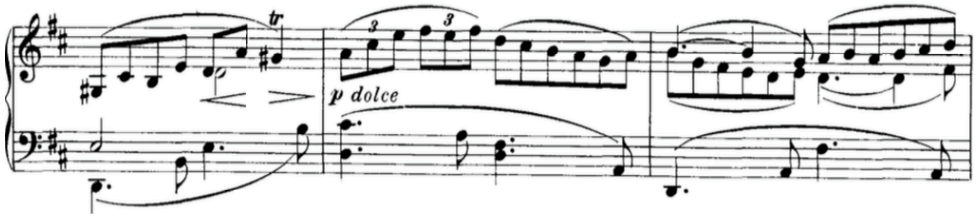
B 부분에서는 바소 오스티나토(basso ostinato)[23] 를 가지는 매우 아름다운 8 마디 주제가 등장하는데, 역시 변주 기법이 사용되어 두 차례 변주된 형태로 반복된다. 주제 선율은 8 분음표 음형으로 제시되는데, 두 번째에는 셋잇단 음표 음형으로, 세 번째에 16 분음표 음형으로 나타나며 장식음과 트릴(trill)이 많이 사용되어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B 부분의 절정을 이룬다. <악보 30>

<악보 30-1> 제 5 번 로망스의 B 부분: 17-18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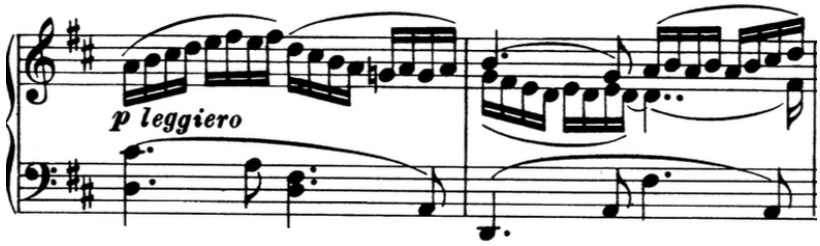
[23] basso ostinato: 어떤 일정한 음형이 악곡 전체나 악절 전체를 통하여 동일 음고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최저성부를 가리키는 용어. '집요한 베이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악보 30-2> 제 5 번 로망스의 B 부분의 변주: 25-26 마디



<악보 30-3> 제 5 번 로망스의 B 부분의 변주: 33-34 마디



6. 인터메조 Intermezzo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마지막 인터메조는 원래 브람스가 교향곡 제 5 번의 느린 악장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말년의 브람스의 심경이 잘 표현된 곡이다.[24]

이 곡은 A-B-A'의 3 부 형식(ternary form)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8>

<표 8> 제 6 번 인터메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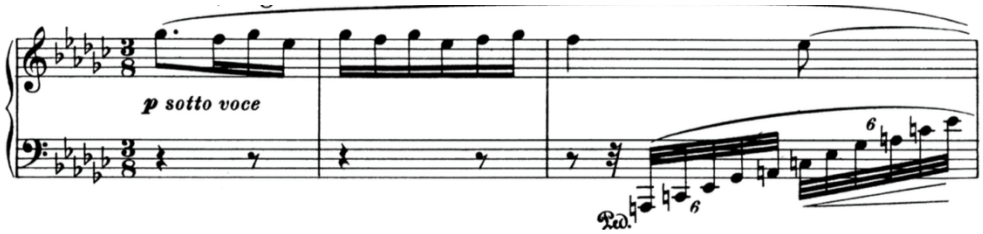
구조		마디	프레이즈 구조	조성
A	a	1-20	1-5 마디	e^{b} minor-b^{b} minor
			5-8 마디	
			8-13 마디	
			13-16 마디	
			17-20 마디	

[24] 음악지우사 저,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브람스」, (음악세계, 2009), 381p

	a′	21-40	21-24 마디	e^{b} minor-b^{b} minor
			25-28 마디	
			28-33 마디	
			33-36 마디	
			37-40 마디	
B		41-62	41-49 마디	G^{b} Major-(e^{b}/V)
			49-62 마디	
A′		63-86	63-66 마디	e^{b} minor
			66-76 마디	
			77-80 마디	
			81-86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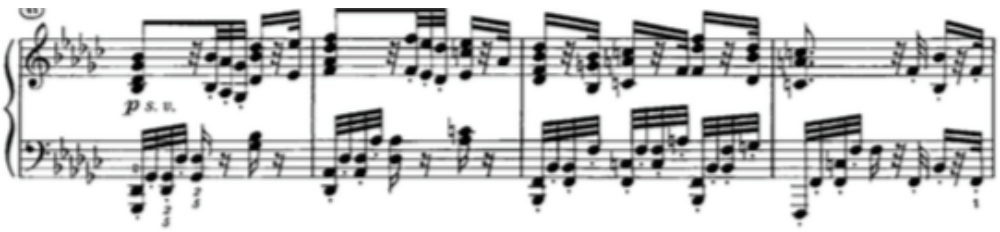
A 부분의 주제 선율은 단 3 개의 음(G^{b}-F-E^{b})으로 구성되어 있다. G^{b} 음이 길게 울린 후 그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E^{b} 음에 이르는 이 네 마디 악구가 그 후에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왼손은 넓은 아르페지오로 화성을 채워준다. <악보 31>

<악보 31> 제 6 번 인터메조의 주제 선율: 1-3 마디



B 부분은 수평적이었던 A 부분과는 대조적으로 수직적으로 전개되며 스타카토의 빈번한 사용과 리드미컬한 진행으로 인해 생동감 넘치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띤다. <악보 32>

<악보 32> 제 6 번 인터메조의 B 부분: 41-44 마디



그러나 53-54 마디, 59-60 마디에서 A 부분의 주제 선율이 언뜻 내비치며 내부의 어두운 감정을 상기시키고 상반된 감정의 교차를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A'부분으로 이어진다.

제 4 장 C. Debussy Suite Bergamasque, L. 75

1) 작품 배경

19 세기말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에 속하는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나 빌헬름 리처드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는 자신들의 음악을 통해 극도의 반음계 사용이나 미해결 종지 등 조성 자체를 모호하게 하는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음악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클로드 아실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등 동시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음악을 통해 점점 조성의 의미가 희미해졌으며, 드뷔시의 음악은 음악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다.

드뷔시는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인상주의(Impressionism)' 라는 단어는 회화에서 먼저 시작되어 사용한 것으로, 에드가 드가(Edgar De Gas, 1834-1917),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오귀스트 르누아르(Auguste Renoir, 1841-1919)등의 작품의 사조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들은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기존의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빛과 그림자를 중시하여 화가가 느끼는 감정을 살리고자 했다. 이러한 인상주의 회화의 특징은 드뷔시가 가진 음악 어법인 불분명한 선율과 화성, 음색의 강조 등과 연관지을 수 있다.

그의 독창적인 음악 어법을 살펴 보면 주로 온음 음계(whole-tone scale), 5 음 음계(pentatonic scale), 그리고 반음계(chromatic)를 주로 사용했다. 또한 그는 음계의 소재를 활용한 교회 선법을 자주 사용했는데, 주로 도리아, 에오리아, 프리지아 선법을 사용했으며 각 선법들의 음역이 한 옥타브에 제한되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화성은 다채로운 음색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비기능적 방식의 화음(7, 9, 11 도 화음의 연속 진행, 증 5 도화음, 감화음 2, 4, 6 도 부가 화음 등)이 불협화음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병행 화음과 분산 화음으로 환상적이고 암시적인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기도 했다.

리듬 및 박자에서는 이국적인 정취를 표현하였다. 또한, 첫 박자의 악센트를 회피한 계류음과 당김음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불규칙적인 박자 분할을 유도하였다.

조성은 지속음(pedal point)으로 화성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하였고, 조성적인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조성과 선법을 혼합시켜 진행하는 복조성(bitonality)과 양손의 조성을 다르게 설정하는 다조성(polytonality)을 즐겨

사용하였다. 또한, 전조를 통해 더욱 인상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

페달을 매우 섬세하고 다양하게 지시함으로써 신비로운 분위기와 색채감을 표현하는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페달 지시는 인상주의 회화에서의 빛의 역할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정형화된 형식보다 그만의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였다. 주로 ABA 의 3 부 형식으로, 단편적 동기가 전체를 통합하는 민속적인 랩소디 형식을 썼다. 그러나 겹세로줄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고 형식의 구성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불분명한 형태를 취하며, 반복과 대조, 변주와 변형, 발전 등으로 각 부분이 분류된다. 이 외에도 바로크의 모음곡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모음곡이라는 형식의 틀만 사용하였을 뿐 내용적으로는 진화된 자신의 음악 어법으로 채우고 있다. 모음곡 형식의 작품으로는 1890 년부터 1905 년까지 작곡한 <Suite Bergamasque>과 1901 년에 작곡된 <Pour le Piano> 그리고 1906 년부터 1908 년까지 작곡한 <Children's Corner> 등이 있다.

2) 작품 해설

베르가마스크 모음곡(<Suite Bergamasque>)는 드뷔시의 초기 작품 중에서 그의 강한 개성을 잘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1890 년 작곡하기 시작하여 1905 년에 출판된 곡이다. 이 곡은 이태리 베르가모(Bergamot) 지방의 농민들이 추는 어색한 춤에서 받은 인상을 기초로 한 작품으로 프렐류드(Prelude), 미뉴엣(Menuet), 달빛(Clair de lune), 파스피에(Passepied) 로 구성되어 있다. 드뷔시의 피아노 작품 중 최초의 모음곡 형식이며 바로크의 춤곡을 포함하고 있지만, 곡의 구성에 있어 모음곡의 정형을 따르지 않고 성격과 형식이 다른 소곡들을 자유롭게 배열하고 있다.

1. 프렐류드 Prélude

즉흥적이고 화려한 성격으로 쓰인 이 곡은 바장조(F Major)의 조성이며 A-B-A'의 형식을 갖는다. 동형 진행이 곡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넓은 음역을 사용한 화려하고 아라베스크(Arabasque)적인 아름다운 선율을 포함하고 있다. [25] 반복되는 선율에 따른 화성 변화, 선법의 사용으로 음색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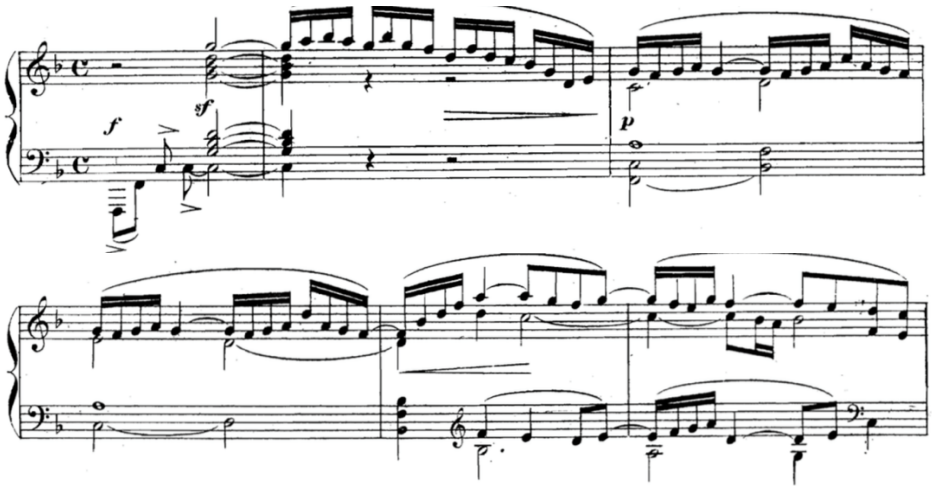
[25] Araesque: '아라비아 풍으로'라는 뜻으로, 문자, 식물, 시하학적인 모티브가 어울려서 교차된 곡선 가운데 융합되어가는 환상적인 무늬이다. 음악용어로 쓰일 때는 '하나의 악상을 화려한 장식으로 전개하는 악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n(1810-1856)과 드뷔시가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적이다.

A 부분 (1-19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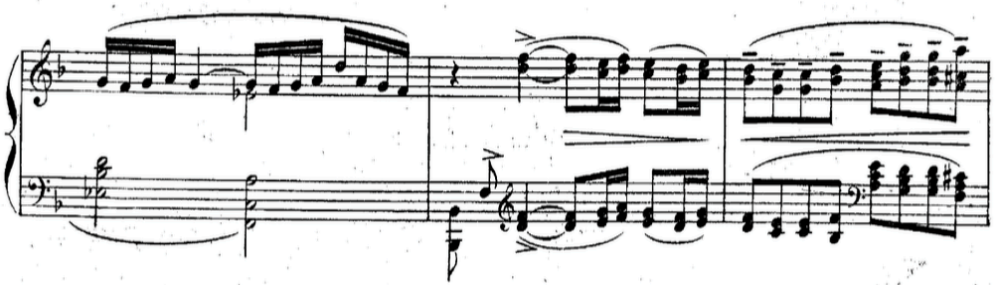
a 부분(1-10 마디)은 바장조(F Major)의 으뜸음이 넓은 음역의 도약으로 시작하며 악센트(accent)와 *sf* 로 상행하여 *diminuendo* 하면서 하행한다. <악보 33>

<악보 33> 프렐류드의 a 부분: 1-6 마디



b 부분(11-19 마디)은 호모포니적(homophony) 진행을 보여 a 부분의 텍스쳐(texture)와 대조를 이룬다. F 중심음에서 벗어나 B^{b} 리디안 선법(Lydian mode)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색을 나타내며 11 마디 역시 1 마디에서 사용되었던 도약 동기로 시작한다. 오른손과 왼손은 3 도로 병진행, 반진행한다. <악보 34>

<악보 34> 프렐류드의 b 부분: 11-12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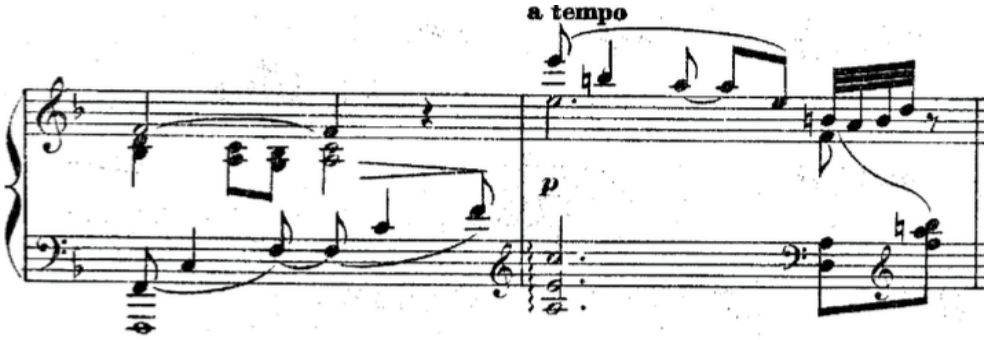


독립적인 형태의 악곡으로 사용였다.

B 부분 (20-43 마디)

B 부분은 높은 음역에서 *p* 로 시작하며 당김음과 장식적인 32 분음표의 리듬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주선율이 나오는 20-23 마디는 A 에올리안 선법(Aeolian mode)이 쓰였고, E 음(A 에올리안 선법의 5 음)을 강조하여 사용했다. <악보 35>

<악보 35> 프렐류드의 B 부분: 20-21 마디



이후 44-65 마디에는 발전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어진다.

A'부분 (66-75 마디)

A 부분의 a 와 같은 조성으로 주제의 선율을 반복하고 있지만 중, 감화음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이후 이어진 81-89 마디는 코다(Coda) 부분이다. 제 87-89 마디는 바장조(F Major)의 IV-I 으로 종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인상주의의 특징이 나타난다.

2. 미뉴엣 Menu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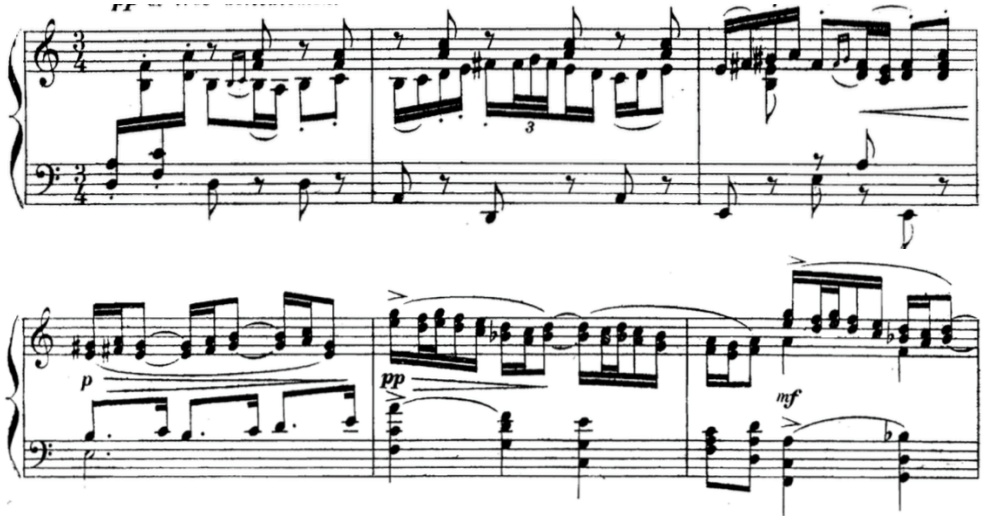
이 모음곡의 미뉴엣은 바로크 시대 유행했던 춤곡 미뉴엣과는 달리 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3/4 박자의 춤곡 형식을 빌려온 것으로,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Andantino)'의 빠르기를 갖는다. 스타카토(staccato), 레가토(legato)와 이음줄(slur) 등의 아티큘레이션을 사용하여 서로 대조되는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채로운 음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선법과 음계를 사용한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A 부분 (1-49 마디)

1 마디의 중간 성부에서 나오는 멜로디는 3 마디의 상성부에서 5 도 상행하여 나온다. 스타카토, 레가토, 슬러 등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5-6 마디에서 한 악구(phrase)의 길이가 3 박에서 4 박으로 변화하면서 3/4 박자에서 4/4 박자로 박자가 변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악보 36>

<악보 36> 미뉴엣의 A 부분: 1-6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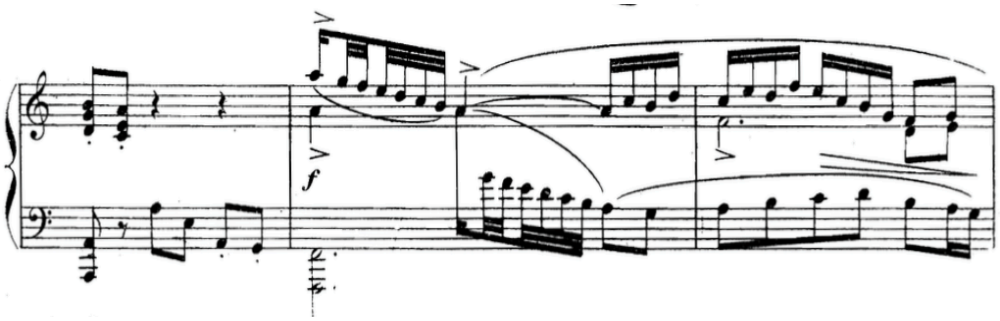


B 부분 (50-72 마디)

마디 50-57 은 레가토의 하행 진행으로 A 부분의 상행 진행의 주제 선율과 대조되는 성격이다.

32 분음표의 하행 선율의 리듬은 더욱 화려한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작곡 기법은 그의 인상주의 음악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요소이다. <악보 37>

<악보 37> 미뉴엣의 B 부분: 50-51 마디



3. 달빛 Clair de l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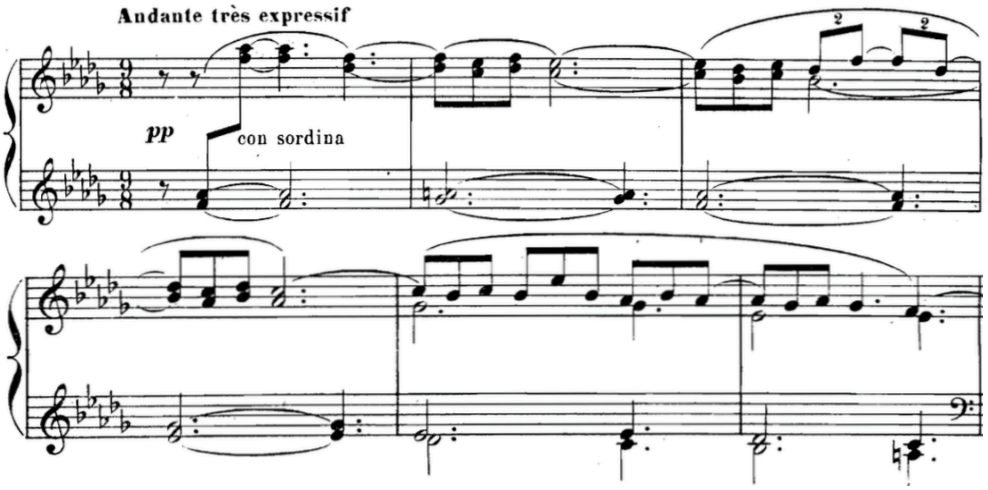
'달빛'은 4 개의 곡 중 유일하게 표제가 붙은 곡이며, 드뷔시의 피아노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하다. A-B-A'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주선율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붙임줄을 이용한 계류음의 사용으로 강박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헤미올라 리듬(hemiola rhythm)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A 부분 (1-49 마디)

1 마디는 쉼표로 시작하며 계속적으로 나오는 붙임줄(tie)의 사용은 당김음 효과를 낸다. 3 마디에서는 단 3 도의 울림과 헤미올라 리듬의 사용으로 규칙적인 박을 불분명하게 하여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을 나타낸다. <악보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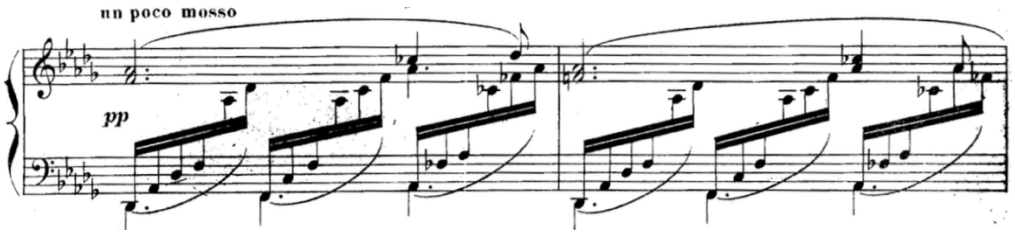
<악보 38> 달빛의 A 부분: 1-6 마디



B 부분 (27-50 마디)

27 마디부터 *pp* 로 시작하며 오른손에서 멜로디가 흐르고 왼손에서는 아르페지오 반주가 동반된다. 왼손 반주에 내림 라장조(D^b Major)와 D^b 도리안 선법(Dorian mode)로 구성된 아르페지오는 음계와 조성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이는 드뷔시의 작곡 기법 중 하나이다. <악보 39>

<악보 39> 달빛의 B 부분: 27-28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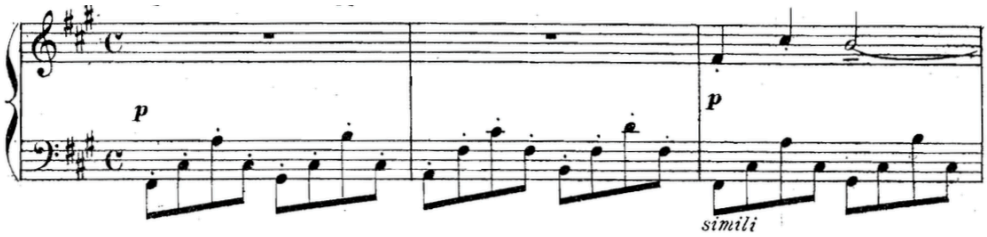
4. 파스피에 Passepied

파스피에는 17 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한 춤곡으로 3/8 또는 6/8 의 비교적 빠르고 경쾌한 3 박자 계열의 춤곡이다. 하지만 이 곡에서는 4 박자로 곡이 진행되어 전통적인 파스피에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곡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왼손의 8 분음표 음형은 스타카토를 통해 빠르고 경쾌한 파스피에 특유의 무곡의 분위기를 나타냈다.

A 부분 (1-58 마디)

왼손에서 나오는 스타카토 혹은 논레가토(non legato)의 반주 음형은 곡 전체에 특징적인 요소이다. F♯ 에올리안 선법(Aeolian mode)의 주선율은 단선율로 진행되며 레가토와 스타카토로 번갈아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악보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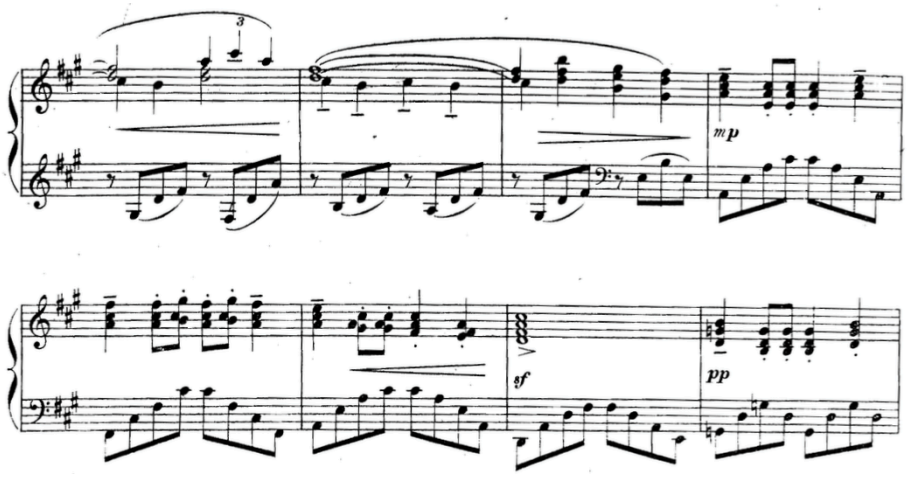
<악보 39> 파스피에의 A 부분: 1-3 마디



B 부분 (56-105 마디)

B 부분의 오른손에서는 테누토(tenuto)와 스타카토가 대조되며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생동감이 느껴진다. <악보 40>

<악보 40> 파스피에의 B 부분: 59-62 마디



Ⅲ. 결론

론도는 중세 프랑스의 시(Poem)의 한 형식으로 출발하여 점차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기악곡에 적용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제부를 반복하는 형식이었지만, 주제부와 삽입부의 대조를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주제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구를 사용했으며,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으로 대표되는 고전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작곡되었던 형식이다. 모차르트의 론도들은 고전 시대에 다악장에 포함되어 론도 형식으로 작곡된 하이든과 베토벤의 론도들과 비교했을 때 독립된 론도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작품 번호 511 은 고전 시대 론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인 5 부 구조로 되어있으며 빠른 리듬형의 음형과 반음계적 선율이 특징이다. 또한 론도로는 드물게 단조를 사용했다. C 부분의 삽입부에 같은 으뜸음 조인 가장조(A Major)를 사용하여 A 부분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또한 A 부분과 유사한 리듬형을 사용하였으나 변형, 반복하여 사용하였으나 선율 장식에 있어 변화를 주며 변형, 반복함으로써 성격적으로 강한 대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징들로 보았을 때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고전 시대의 론도의 특성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은 짧고 간결하지만 선명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작품 번호 142 의 제 3 번은 하나의 완벽한 주제와 변주로써 독립된 하나의 변주곡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조성적 설계와 빠르기 순서 등을 고려했을 때 제 1, 2 번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던 브람스는 생애 마지막 20 년동안 명상적인 색채를 지닌 소규모 곡들로 구성된 모음곡집을 작곡했다. 4 곡의 인터메조(Intermezzo), 1 곡의 발라드(Ballade), 1 곡의 로망스(Romanze)로

구성된 『Klavierstücke Op. 118』의 6 곡은 3 부 형식의 단순한 구조를 갖지만 내용적으로는 변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카논, 모방 등의 대위법적인 기교가 사용되었고, 음역대를 넓게 씀으로써 관현악적인 색채도 띠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6 번에서는 특유의 쓸쓸함과 애잔한 감정이 담긴 그의 후기 작품의 특성을 여실히 나타난다.

베르가마스크 조곡(Suite Bergamasque)은 드뷔시의 초기 피아노 작품 중 대표적인 곡이다. 바로크 시대에 성행하던 모음곡 형식의 전통적인 형식을 따랐으나,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 어법으로 승화시켰으며 인상주의 음악의 작곡 기법이 잘 드러난 곡이다. 다양한 성격의 악장을 자유로이 연결했다.

ABSTRACT

Originally the Rondo form was regarded as repeating of refrains. In classical period it has a more complex form such as three parts, five parts and seven parts in a changing form. The K. 511 has five parts form which is basic rondo form in Classicism. In this basic form, we can find that variated themes are founded by devided rhythms and chromatic melodies. This work has a minor key and slow tempo but it is more brilliant and harmonic than others. Mozart's Piano Rondos were influenced by the Galant style which was contemporary in his life. Moreover, this rondo shows the basic rondo form of the Classical period and make a foundation in developing of rondo form. Though Mozart's rondos take a small part in his whole works, it is sure that Mozart's great musical talent and values are well founded in them.

Schubert Impromptus, Op.142 are works which can be categorized as "Character pieces", a new genre of Romantic era.

Melodic characteristics of Schubert's Impromptus are closely related to his art songs in musical texture, phrasing and accompaniments.

Harmonic color is one of the elements that Schubert put his much effort on most of his works. In his Impromptus, brief modulation and chromatic changes play an important part for harmonic color. In rhythm, Schubert preferred simple and repetitive rhythmic motiv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Op.142, a fact can be drawn that Schubert designed a four-movement sonata structure for this set. Its harmonic relations and forms of each Impromptu are similar to those of the Classical periods'

sonata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Op.142, a fact can be drawn that Schubert designed a four-movement sonata structure for this set. Its harmonic relations and forms of each Impromptu are similar to those of the Classical periods' sonatas.

Brahms had written collections of short piano pieces in his later years. 6 Klavierstücke, Op. 118 consisting of 6 pieces, expresses mature inner world and internal thoughts of Brahms's. He condensed expression modes and techniques in his large-scale works into small pieces by adopting binary form or ternary form(ABA).

Debussy played a prominent role connecting Romanticism in the 19th century and modern music in the 20th century. Suite Bergamasque was composed with the motive of the folk dances of Bergamo in northern Italy. These works were composed with a form of Classic suite but the short composition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forms. The four movements of Suite Bergamasque are Prèlude, Menuet, Clair de Lune and Passepied.

In this suite,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 features of his Impressionistic patterns. First, he used wide ranges of piano. Second, he repeated melodies and phrases often but he used different harmonies, church modes and diatonic scales each time changing constantly in order to vary the color of the phrases. We could compare this with Impressionistic painters who used different colors according to light of the day on the same object. Third, he changed the texture often sometimes every eight bars or four bars like terrace dynamic of the Baroque period. Forth, he used various articulations such as staccato, legato, tenuto and slur marking contrast to each other.

참고 문헌

ALFRED EINSTEIN. MOZART: HIS CHARACTER AND HIS WORK.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EISEN, CLIFF&STANLEY SADIE. THE NEW GROVE MOZART.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2002

GREEN, DOUGLASS.M. FORM IN TONAL MUSIC. 2ND EDITION. NEW YORK; HOLT, RIENEHART AND WINSTON, INS. 1965.

DAVID BURGE, 박숙련 역.『20 세기 피아노 음악』. 서울; 음악춘추사. 1997.

ERIC SALZMAN, 김혜선 역.『20 세기 음악』. 서울; 도서 출판 다리. 2001.

F.E.KIRBY, 김혜선 역.「피아노 음악사」. 서울; 도서출판 다리. 2003.

GILLESPIE JOHN.「피아노 음악」제 2 개정판. 김경임 (譯).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GROUT DONALD JOY, 김진균 역.「서양음악사」. 서울; 세광출판사. 1982.

KIRBY F. E., 김혜선 옮김,「건반 음악의 역사 A SHORT HISTORY OF KEYBOARD MUSIC」. 서울;

도서 출판 다리. 1997

SCHMITZ E. ROBERT, 김난희 역.「드뷔시 피아노 작품과 연주 해석」. 서울; 음악춘추사. 1984.

권송택.「음악 속 삶 읽기」.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1

음악지우사 편집부 저.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모차르트」. 서울; 음악세계. 2001.

음악지우사 편집부 저.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슈베르트」. 서울; 음악세계. 2002.

음악지우사 편집부 저.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브람스」. 서울; 음악세계. 2003.

차오성, 오희숙, 김미옥 공저.「피아노문헌 연구 2」. 서울; 도서 출판 심설당. 2012.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공저.「두길 서양음악사 제 1 권」. 서울; 나남 출판. 1997.